

* 이 논문은 1994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대학생 문제 및 해결 행동 분석과 지도 방안

박태수*·김두화**·김병택***

목 차

I. 서 론

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조사대상
3. 조사도구
4. 통계처리

III. 결과 및 해석

1. 문제에 대한 분석
2. 문제해결 노력정도에 대한 결과
3. 문제와 해결 노력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
4. 문제해결 행동 유형에 대한 분석

IV. 결 론

1. 요 약
2. 학생지도 방안

* 참고문헌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지도부장(부교수)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조사연구부장(부교수)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교수)

I. 서 론

대학에서 학생생활 지도의 문제는 최근에 들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제 발생 사안에 따라 학생들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지도하였고 대상도 일부 대상에 한정되었으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발달과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보다 나은 성장·발달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는 소수의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특별 지도하는 일은 물론 보다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학생생활 지도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도록 조력하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지도의 내용이나 방법도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생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새로운 계획이나 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생활에서의 교육풍토 차이로 인해 자신들의 내면적·외면적 발달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함이 없이 급변하는 생활속에서 많은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껏 받아들인 교육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 효과적인 자기표현 및 인간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자질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은 문제사태에 직면했을 때, 행동과 실천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보다는 소극적인 해결방법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더라도 주로 대학생들의 생활실태와 문제경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뿐 해결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홍재호, 1981; 이태근외, 1982; 박재욱, 1984). 그리고 이러한 문제경향에 대한 분석은 대학단위 자체적으로 제작된 검사도구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 나라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대학생 문제진단 검사가 없었다. 최근에는 한정신(1991)이 「한국 대학생 문제진단검사」를 개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대학생 문제진단 검사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진단 검사만으로는 대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실제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혜성 외(1989)는 대학생들의 문제경향과 노력정도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해결행동까지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표준화된 「대학생 문제 및 해결행동 진단검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에 의해 김경미·손영숙(1990)은 이화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문제경향 및 해결행동에 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학생지도에 적용하고 있다.

본 대학에서는 그 동안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왔으나 그 결과를 학생지도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느껴왔다. 특히 본교 대학생들은 제주도라는 문화적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의식구조 성향을 띠고 있어서 그들의 문제경향 뿐만 아니라 해결행동 유형이 파악되어야 보다 실질적인 대학생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해결책과 지도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 영역과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며, 어떤 유형의 문제 해결 방안을 사용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을 바르게 이해하여 학생생활 지도 계획 수립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해결책과 지도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 영역은 어떤 범주에서 어느 정도이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파악하여 생활지도 방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지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의 영역은 무엇이며, 현재 이들에게 가장 크게 관심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이 문제들은 단대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대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며, 어떤 유형의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다. 문제해결 유형은 ① 적극적 대처유형 ② 대인의존적 대처 유형, ③ 정서적 대처 유형, ④ 체념 또는 회피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대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학생들의 문제경향 및 문제해결 방식에 따라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별, 학년별, 성별을 고려한 특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제주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중에서 4학년을 제외한 1-3학년을 대학, 학년, 남녀를 고려하여 총 1,000명을 표집하였다. 그러나 검사지 수합후 분석에서 반응이 불성실한 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자료는 872명이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조사 대상 현황

구 분	대 학								학 년 별			성 별		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대 상	144	111	82	109	84	88	174	80	397	201	274	363	509	872

3. 조사 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이해성, 손영숙, 김미경(1989)이 공동 제작한 「대학생 문제 및 해결 행동 진단검사」이다. 이 검사지는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마다 10개 문항씩 총 90문항이며, 각 문항은 문제를 느끼는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의 문제 영역에는 ① 건강, ② 경제, ③ 부모 및 가정, ④ 대인관계, ⑤ 성격, ⑥ 학업생활, ⑦ 진로 및 취업, ⑧ 종교 및 가치관등이 있다.

4. 통계 처리

본 조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연구의 내용에 따라 문제점수, 해결노력점수, 차이점수, 문제해결행동유형으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며,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문제점수 :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로서 각 항목별로 합산한 숫자가 그 영역이 문제점수가 된다.
- 2) 해결노력점수 : 어떤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각 항목에 표시된 해결노력 정도의 합이 그 영역의 해결노력 점수이다.
- 3) 차이점수 : 문제점도와 해결노력정도 간의 불일치(문제점수-해결노력점수)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차이점수가 양수이면 문제점도에 비해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이고, 차이점수가 음수이면 문제점도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이점수의 값이 클수록 노력을 적게 함을 의미한다.
- 4) 문제해결행동유형 : 문제가 되는 항목이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택, 사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로 4가지 해결행동유형(적극적 대처 유형, 대인의존적 대처 유형, 정서적 대처 유형, 체념 또는 회피 유형)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유형이 그 영역의 문제에 대해 흔히 대처하는 행동양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영역 구별 없이 전체적으

로 합산한 4가지 행동유형의 빈도는 각 개인이 일반적으로 갖는 문제에 대한 내용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각 점수는 단대별, 학년별, 성별로 빈도와 반응 백분률을 구하고, 이에 따른 모든 통계 처리 결과는 SPSS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문제에 대한 분석

1) 문항별 분석

문항별 반응 평균점수는 문항내용이 자신의 문제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0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3점으로 계산된 것으로 평균값이 클수록 문제로 여기는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① 건강영역

<표-2>의 건강영역에서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문제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운동부족'으로서 문제점수 평균값이 1.48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느끼는 문항을 보면, '머리가 멍하고 머리가 무겁다'와 '쉽게 피로를 느낀다'가 1.38, '위장이 나쁘다'에 1.27, '허리, 다리가 아프다'가 1.11, '체력이 딸린다'가 1.0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혈' 0.93, '생리불순' 0.83, '잔병이 많다' 0.72은 1.00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문제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가장 높은 문제점수(1.36)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법정대학(1.16), 자연과학대학(1.11), 경상대학(1.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1-3학년 간에는 문제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미미한 차이기는 하나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다소 낮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도 성별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이 0.80임에 비하여 여학생은 1.31로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높으며, 특히 '빈혈이 있다'에서는 남학생이 0.52임에 비하여 여학생 1.18, '허리, 다리가 아프다'에서 남학생은 0.92, 여학생은 1.24, '편두통'에서는 남학생이 0.55, 여학생은 1.17로 나타나서 대학생의 연령(20세-23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건강영역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운동이 부족하다	1.48	1.65	1.55	1.35	1.40	1.44	1.33	1.57	1.30	1.42	1.49	1.56	1.20	1.67
	0.94	0.90	1.02	0.93	0.91	0.96	0.99	0.87	0.95	0.96	0.95	0.90	1.00	0.85
빈혈(현기증)이 있다	0.91	1.08	0.86	0.83	0.89	0.82	0.73	1.05	0.76	1.49	1.42	1.56	0.52	1.18
	0.93	0.95	0.98	0.90	0.91	0.95	0.88	0.88	0.94	0.95	0.96	0.90	0.83	0.90
편두통이 있다	0.91	1.22	0.93	0.67	0.84	0.92	0.74	0.90	0.89	0.92	0.89	0.94	0.55	1.17
	0.96	1.01	0.95	0.96	0.96	0.87	0.95	0.91	0.95	0.94	0.97	0.96	0.88	0.93
쉽게 피곤을 느낀다	1.38	1.69	1.46	1.38	1.26	1.26	1.25	1.28	1.31	1.35	1.34	1.43	1.14	1.54
	0.99	0.94	1.01	1.00	0.99	0.97	1.06	0.94	0.94	1.00	0.98	0.96	1.01	0.93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 때가 있다	1.38	1.65	1.41	1.41	1.28	1.40	1.17	1.43	1.03	1.40	1.29	1.41	1.09	1.58
	0.90	0.80	0.94	0.94	0.96	0.92	0.90	0.81	0.95	0.90	0.93	0.90	0.95	0.82
위장이 나쁘다	1.27	1.56	1.26	1.17	1.12	1.27	1.17	1.33	1.04	1.21	1.33	1.30	1.08	1.40
	1.10	1.04	1.17	1.04	1.02	1.12	1.13	1.13	1.07	1.07	1.15	1.10	1.08	1.09
잔병이 많다	0.72	0.90	0.84	0.68	0.68	0.65	0.63	0.65	0.65	0.78	0.65	0.68	0.61	0.80
	0.94	1.01	1.03	0.93	0.92	0.90	0.90	0.87	0.94	0.99	0.91	0.89	0.89	0.97
생리불순 생리통이 있다	0.83	1.14	0.90	0.79	0.79	0.65	0.44	0.97	0.58	0.87	0.73	0.83	0.08	1.35
	1.07	1.08	1.12	1.08	1.04	0.98	0.87	1.13	1.03	1.09	1.05	1.07	0.41	1.08
허리, 다리가 아프다	1.11	1.37	1.14	1.02	0.95	1.13	0.98	1.08	1.09	1.08	1.15	1.12	0.92	1.24
	1.96	0.97	1.03	0.98	0.98	0.95	0.98	0.90	0.86	0.96	0.95	0.97	0.99	0.92
체력이 딸린다	1.06	1.35	1.25	1.12	0.92	0.93	1.06	0.88	0.88	1.06	0.98	1.11	0.91	1.16
	0.99	1.07	1.01	1.00	0.90	0.94	1.03	0.88	0.97	0.99	1.00	0.98	0.96	1.00
전 체 평 균	1.10	1.36	1.16	1.05	1.01	1.05	0.95	1.11	0.95	1.10	1.07	1.13	0.80	1.31
	0.61	0.60	0.65	0.57	0.62	0.61	0.58	0.57	0.61	0.61	0.64	0.59	0.56	0.56

* 각 항목의 위의 숫자는 평균점수, 아래숫자는 표준편차임.

② 경제 영역

<표-3>에 의하면, 본교생이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데 돈 쓰고 후회한다'에 1.52이며, '경제력이 없다'에 1.41로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애로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무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 원하나 가정형편이 어렵다'라든가 '집에 수입이 없어 가계에 보태야 한다', '학비 때문에 빛있다'등의 항목에는 0.25이하의 점수를 보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본교생들의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0.80로서 대학중 가장 높은 문제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경성대학(0.74), 농과대학(0.73), 법정대학(0.72)으로서 1.00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간에 별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다만 '부직' 구하기가 어렵다'에서는 3학년이 1.03으로서 1학년의 0.85, 2학년의 0.84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부직을 구하여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0.76으로서 남학생 0.65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원인은 '부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에서 남학생 0.67에 비해 여학생 1.07로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난 데 기인하고 있다.

<표-3>

경제영역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스스로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	1.41 0.97	1.44 0.97	1.47 1.02	1.52 0.92	1.11 0.98	1.42 0.91	1.48 1.02	1.45 0.95	1.45 0.97	1.42 0.95	1.31 1.02	1.48 0.95	1.34 0.97	1.47 0.97	
용돈이 부족하다	1.23 0.95	1.25 0.90	1.28 0.95	1.24 0.91	0.98 0.96	1.29 0.98	1.22 1.04	1.29 0.95	1.26 0.96	1.28 0.94	1.20 0.98	1.18 0.95	1.34 0.97	1.47 0.97	
하숙비, 또는 자취생 활비가 많이 든다	0.50 0.92	0.55 0.94	0.45 0.89	0.44 0.85	0.46 0.92	0.51 0.98	0.56 0.97	0.53 0.92	0.48 0.91	0.45 0.91	0.47 0.90	0.60 0.96	0.46 0.91	0.53 0.93	
불필요한 일에돈을 쓰 고 후회하는 때가 있다	1.52 0.89	1.55 0.83	1.53 0.96	1.44 0.86	1.39 0.95	1.56 0.88	1.59 0.88	1.58 0.90	1.51 0.87	1.55 0.90	0.55 0.89	1.46 0.87	1.47 0.94	1.56 0.85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만 가정 형편상 취직을 해야만 하는 현 실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0.20 0.59	0.26 0.70	0.30 0.78	0.28 0.65	0.12 0.42	0.20 0.62	0.17 0.57	0.16 0.47	0.09 0.36	0.13 0.46	0.14 0.51	0.35 0.76	0.22 0.63	0.19 0.56	
집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가 계에 보태야 하는 부담이 있다	0.14 0.48	0.19 0.58	0.23 0.60	0.09 0.39	0.10 0.38	0.10 0.37	0.15 0.54	0.11 0.45	0.10 0.41	0.12 0.44	0.12 0.48	0.16 0.55	0.16 0.52	0.12 0.45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직, 또는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	0.55 0.93	0.63 1.03	0.53 0.89	0.56 0.94	0.69 1.01	0.63 1.00	0.49 0.83	0.47 0.91	0.38 0.74	0.51 0.93	0.47 0.88	0.66 0.97	0.49 0.88	0.59 0.97	
부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	0.90 1.00	1.06 1.02	0.80 1.00	1.06 1.06	0.62 0.96	0.81 0.94	0.78 0.99	1.01 0.97	1.00 1.02	0.85 0.95	0.84 1.02	1.03 1.04	0.67 0.94	1.07 1.01	
학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	0.11 0.44	0.17 0.62	0.09 0.39	0.09 0.36	0.06 0.31	0.23 0.63	0.03 0.24	0.09 0.39	0.09 0.40	0.08 0.36	0.10 0.44	0.15 0.54	0.12 0.50	0.10 0.40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	0.58 0.83	0.80 0.95	0.50 0.80	0.74 0.81	0.56 0.81	0.52 0.86	0.56 0.86	0.53 0.81	0.34 0.59	0.51 0.80	0.61 0.85	0.66 0.86	0.47 0.84	0.65 0.82	
전 체 평 균	0.71 0.42	0.80 0.46	0.72 0.43	0.74 0.38	0.61 0.42	0.73 0.41	0.70 0.45	0.72 0.42	0.67 0.32	0.69 0.39	0.68 0.41	0.77 0.47	0.65 0.42	0.76 0.42	

③ 부모 및 가정 영역

<표-4>의 부모 및 가정영역에서 가장 높은 문제 점수를 보인 것은 '부모님께 신경을 못써 마음걸린다'에 1.60이고, 이러한 결과는 김미경외(1990)의 연구와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흔히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밀접했으나 대학에 다니면서 그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일게 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로 부모님과 충돌'이 1.12, '부모님의 기대가 커서 부담'이 1.0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 0.25,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0.26,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0.34의 낮은 점수를 보여서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

<표-4> 부모 및 가정 영역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커서 부담스럽다	1.05	1.14	1.05	1.13	1.17	0.88	1.07	1.06	0.80	1.07	1.04	1.04	0.92	1.15
내가 하는 일 행동에 대해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다	0.73	0.81	0.75	0.90	0.68	0.61	0.61	0.81	0.59	0.83	0.68	0.64	0.58	0.84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0.90	0.91	0.95	1.00	0.86	0.84	0.90	0.88	0.84	0.95	0.87	0.85	0.84	0.93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0.34	0.45	0.38	0.35	0.22	0.35	0.25	0.34	0.36	0.36	0.36	0.31	0.34	0.35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0.71	0.85	0.74	0.71	0.53	0.74	0.63	0.66	0.80	0.74	0.69	0.70	0.74	0.70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하다	0.26	0.39	0.28	0.33	0.28	0.23	0.15	0.20	0.24	0.25	0.30	0.25	0.23	0.29
형제, 자매들의 문제로 걱정이 있다	0.57	0.74	0.61	0.59	0.54	0.50	0.42	0.48	0.56	0.59	0.57	0.53	0.58	0.56
가족중에 싫은 사람 나와 잘 안맞는 사람이 있다	0.25	0.23	0.38	0.28	0.23	0.21	0.27	0.25	0.15	0.30	0.23	0.19	0.27	0.24
부모님께 신경을 못써 드러 늘 마음에 걸린다	0.59	0.55	0.74	0.61	0.54	0.54	0.66	0.57	0.45	0.66	0.53	0.52	0.64	0.55
부모님과 또는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함을 느낀다	0.50	0.56	0.51	0.52	0.51	0.49	0.47	0.48	0.40	0.51	0.44	0.53	0.53	0.47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다	0.78	0.79	0.84	0.80	0.80	0.75	0.82	0.77	0.63	0.81	0.75	0.76	0.82	0.75
전체 평균	0.45	0.60	0.36	0.48	0.46	0.42	0.23	0.49	0.49	0.47	0.44	0.43	0.32	0.55
	0.81	0.89	0.74	0.80	0.79	0.79	0.60	0.84	0.87	0.84	0.74	0.81	0.73	0.84
	1.06	1.17	0.89	1.24	1.19	0.99	0.97	0.98	1.04	1.05	1.04	1.08	0.91	1.16
	0.98	0.98	1.01	0.91	0.99	1.01	0.98	0.96	1.01	0.98	1.02	0.97	1.01	0.95
	1.12	1.23	1.04	1.21	1.14	1.06	0.93	1.16	1.10	1.18	1.07	1.07	0.95	1.24
	0.93	0.92	0.94	0.93	0.91	0.92	0.96	0.88	0.99	0.94	0.93	0.90	0.92	0.91
	0.74	0.82	0.70	0.82	0.76	0.68	0.65	0.73	0.68	0.77	0.71	0.71	0.95	1.24
	0.45	0.49	0.48	0.48	0.41	0.47	0.43	0.41	0.43	0.46	0.45	0.44	0.92	0.91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경상대학이 0.82로서 가장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범대학(0.76), 자연과학대학(0.7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 특이한 항목은 '부모님 기대가 커서 부담'이라는 항목에서 사범대학이 1.17, 인문대학 1.14, 경상대학 1.13임에 비해 농과대학 0.88, 공과대학 0.80로서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학년간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다'에서 1학년 0.83, 2학년 0.68, 3학년 0.64로서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간섭이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항목과도 상관이 있는 것 같다. 이 항목에서는 1학년 0.30, 2학년 0.23, 3학년 0.19로서 역시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1.24로서 남학생 0.95보다 더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다'에서 여학생은 0.84임에 비해 남학생은 0.58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고방식, 가치관에 따른 의견 충돌'에서는 남학생이 0.95이나 여학생은 1.241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님과 더 많은 충돌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인관계 영역

<표-5>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리더쉽'이 부족하다'가 1.19로서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이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기 힘들다'가 0.91로서 별로 문제로 느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친구가 없다',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모두 0.50이하로서 대인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표-5>

대인관계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문항내용	구분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사교성이 부족하다		0.80	0.86	0.76	0.80	0.82	0.76	0.77	0.83	0.69	0.78	0.74	0.86	0.65	0.90
		0.81	0.85	0.88	0.79	0.83	0.79	0.75	0.82	0.74	0.83	0.80	0.80	0.80	0.81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		0.79	0.85	0.84	0.84	0.87	0.65	0.89	0.72	0.66	0.71	0.81	0.91	0.61	0.92
		0.86	0.88	0.89	0.90	0.87	0.72	0.96	0.84	0.75	0.83	0.86	0.88	0.83	0.86
학교 안에 친한 친구가 없다		0.22	0.21	0.30	0.16	0.28	0.14	0.18	0.24	0.15	0.23	0.22	0.19	0.24	0.20
		0.54	0.50	0.63	0.48	0.61	0.49	0.47	0.58	0.48	0.58	0.54	0.48	0.61	0.48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0.31	0.33	0.05	0.30	0.35	0.26	0.31	0.32	0.19	0.31	0.25	0.34	0.26	0.34
		0.60	0.64	0.63	0.58	0.63	0.60	0.55	0.60	0.48	0.62	0.55	0.59	0.60	0.59
리더쉽이 부족하다		1.13	1.19	1.20	1.15	1.11	1.06	1.09	1.07	1.20	1.14	1.04	1.19	0.95	1.26
		0.89	0.91	0.92	0.89	0.85	0.83	0.87	0.91	0.88	0.88	0.90	0.88	0.87	0.88
남에게 내 속 마음을 털어 놓기 힘들다		0.91	1.02	0.97	0.90	0.92	0.79	0.90	0.89	0.79	0.93	0.85	0.92	0.87	0.93
		0.96	0.99	1.00	0.99	0.96	0.87	1.05	0.91	0.88	1.00	0.96	0.90	1.02	0.91
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		0.49	0.51	0.45	0.45	0.54	0.50	0.48	0.53	0.39	0.48	0.50	0.49	0.45	0.51
		0.69	0.72	0.61	0.65	0.71	0.74	0.71	0.71	0.67	0.71	0.73	0.65	0.74	0.66
내 성적이 다		0.89	1.01	0.71	0.85	0.93	0.75	1.00	0.93	0.84	0.90	0.82	0.92	0.88	0.90
		0.88	0.93	0.79	0.83	0.92	0.88	0.90	0.89	0.85	0.90	0.88	0.86	0.92	0.86
이성 앞에서는 웬지 자신이 없고 긴장된다		0.70	0.74	0.70	0.59	0.60	0.65	0.83	0.71	0.71	0.79	0.62	0.62	0.78	0.63
		0.88	0.92	0.86	0.75	0.84	0.90	1.02	0.87	0.90	0.92	0.85	0.85	0.95	0.83
남 앞에서 내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겠다		0.70	0.73	0.72	0.74	0.65	0.60	0.65	0.72	0.74	0.72	0.67	0.68	0.64	0.74
		0.80	0.84	0.87	0.83	0.74	0.85	0.77	0.76	0.81	0.83	0.76	0.80	0.81	0.80
전 체 평 균		0.69	0.74	0.70	0.68	0.71	0.62	0.71	0.70	0.64	0.70	0.65	0.71	0.63	0.73
		0.49	0.55	0.50	0.50	0.48	0.47	0.49	0.50	0.38	0.50	0.48	0.49	0.51	0.48

이를 대학별로 보면, 경상대학이 0.80으로서 대학중 문제의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문대학(0.74), 사범대학(0.71), 법정대학·자연과학대학 0.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간의 문제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1.00이상의 항목은 '리더쉽이 부족하다'뿐이며, '학교 안에 친구가 없다'는 항목은 1-3학년 모두 0.23 이하로 다른 항목에 비해 친구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0.63으로서 여학생의 0.73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교성이 부족하다'에 남학생 0.65, 여학생 0.90으로 나타났고, '인간관계에 폭이 좁다'에는 남학생이 0.61, 여학생이 0.92로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⑤ 성격 영역

<표-6>의 성격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즉흥적·충동적이다'와 '감정기복이 심하여 자주 우울해진다'에 1.17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감이 부족하다' 1.06, '성질이 급하다'에 1.0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시기 대학생들의 감정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충동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항목, 즉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하다'거나 '편견에 잘 빠진다'거나 신경질을 잘 낸다는 항목에서는 0.82이하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6> 성격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분	전체	대학별								학년별			성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즉흥적, 충동적인 경향이 있다	1.17 0.86	1.29 0.80	1.18 0.96	1.13 0.81	1.12 0.86	1.33 0.81	1.10 0.90	1.11 0.85	1.03 0.86	1.12 0.84	1.14 0.91	1.25 0.84	1.15 0.94	1.18 0.79
성질이 급하다	1.03 0.88	1.02 0.80	1.09 0.95	1.09 0.76	1.00 0.81	1.14 0.92	1.03 1.01	0.97 0.89	1.01 0.97	0.97 0.86	0.99 0.90	0.16 0.88	1.01 0.93	1.06 0.85
우유부단하다	0.96 0.90	1.08 0.90	0.96 0.88	1.05 0.86	1.02 0.86	0.96 0.95	0.92 0.94	0.86 0.90	0.90 0.89	0.94 0.88	0.95 0.92	0.01 0.91	0.98 0.93	0.95 0.87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자주 우울해진다	1.17 0.99	1.51 0.98	1.06 0.97	1.23 0.92	1.14 0.91	1.10 1.04	1.09 1.04	1.08 0.96	1.06 1.06	1.12 0.99	1.12 0.97	1.29 0.99	0.95 1.00	1.33 0.95
자신감이 부족하다	1.06 0.88	1.14 0.87	1.10 0.96	1.09 0.85	0.96 0.87	1.05 0.90	0.94 0.91	1.10 0.85	0.98 0.84	1.08 0.89	0.98 0.90	1.08 0.85	0.83 0.88	1.21 0.85
신경질을 잘 낸다	0.82 0.85	0.90 0.90	0.84 0.83	0.87 0.78	0.79 0.82	0.76 0.93	0.78 0.92	0.79 0.82	0.76 0.86	0.79 0.84	0.81 0.86	0.86 0.87	0.65 0.81	0.93 0.86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하다	0.75 0.91	1.04 0.96	0.85 0.85	0.71 0.91	0.61 0.86	0.62 0.92	0.77 0.97	0.68 0.85	0.61 0.88	0.72 0.92	0.64 0.86	0.88 0.91	0.66 0.89	0.82 0.91
편견에 잘 빠진다	0.69 0.81	0.74 0.84	0.80 0.86	0.71 0.81	0.61 0.74	0.65 0.81	0.72 0.86	0.65 0.78	0.61 0.79	0.68 0.81	0.67 0.80	0.71 0.81	0.55 0.80	0.79 0.80
적극성, 활동성이 부족하다	0.82 0.87	0.94 0.91	0.79 0.93	0.84 0.91	0.73 0.80	0.76 0.84	0.91 0.94	0.83 0.84	0.65 0.80	0.77 0.88	0.78 0.86	0.91 0.87	0.71 0.88	0.89 0.86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0.85 0.81	0.99 0.80	0.81 0.85	0.94 0.79	0.86 0.82	0.70 0.85	0.78 0.78	0.79 0.77	0.78 0.83	0.82 0.84	0.82 0.78	0.88 0.79	0.71 0.85	0.93 0.77
전체 평균	0.93 0.53	1.06 0.54	0.95 0.56	0.96 0.49	0.88 0.45	0.91 0.62	0.91 0.59	0.88 0.50	0.84 0.47	0.90 0.51	0.88 0.54	1.00 0.54	0.82 0.53	1.01 0.52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1.06으로서 가장 높은 문제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대학(0.96), 법정대학(0.95), 농과대학·해양대학(0.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더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성질이 급하다'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1학년이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하며, 2학년이 되어 정서적으로 덜 불안해지지만 3학년이 되면 다시 더 불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전반적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문제점수가 높으며,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와 '신경질을 잘낸다' '자신감이 부족하다'에서는 그 차이가 더 심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성격영역에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학업생활 영역

<표-7>의 학업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에 1.93으로서 전 영역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미경 외(1990)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것으로서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외국어 실력에 대한 콤플렉스로 보인다. 그 다음이 '공부를 충실히 못하고 있다'에 1.57, '계획성 없는 학교생활'에 1.55, '시험, 학점, 과제물이 부담스럽다'에 1.35를 보임으로써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활 중 동아리 활동과 학업생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표-7> 학업생활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성적 학점이 나쁘다	0.98	1.01	0.86	0.88	0.95	1.06	0.94	1.05	1.09	1.02	0.95	0.96	1.06	0.93
	0.85	0.78	0.95	0.72	0.77	0.91	0.89	0.88	0.89	0.82	0.84	0.91	0.94	0.78
학교생활이 불만스럽고 별다른 재미나 의욕을 못느끼겠다	0.99	1.02	0.96	1.01	0.95	0.93	1.02	1.03	0.99	1.13	0.91	0.86	0.92	1.05
	0.91	0.87	0.99	0.91	0.88	0.85	0.99	0.85	0.99	0.94	0.88	0.86	0.96	0.86
내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1.57	1.71	1.56	1.63	1.50	1.53	1.49	1.64	1.38	1.66	1.44	1.54	1.53	1.60
	0.85	0.80	0.94	0.78	0.82	0.87	0.91	0.84	0.82	0.80	0.92	0.86	0.91	0.80
대학에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1.08	1.16	1.12	1.07	1.12	0.86	1.08	1.11	0.96	1.13	1.01	1.05	0.98	1.15
	0.94	0.92	1.02	0.95	0.90	0.93	0.97	0.94	0.91	0.95	0.94	0.92	0.97	0.91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다	1.23	1.28	1.20	1.43	0.95	1.14	1.38	1.24	1.24	1.35	1.08	1.15	1.12	1.30
	0.97	0.94	1.06	0.94	0.91	1.04	0.93	0.98	0.93	0.98	0.95	0.96	1.00	0.94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0.81	0.85	0.84	0.83	0.74	0.77	0.73	0.92	0.69	0.82	0.76	0.84	0.73	0.87
	0.90	0.90	0.92	0.93	0.83	0.93	0.92	0.93	0.85	0.93	0.88	0.89	0.95	0.87
계획성 있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55	1.66	1.58	1.66	1.39	1.46	1.50	1.61	1.44	1.63	1.48	1.49	1.46	1.62
	0.87	0.85	0.82	0.85	0.85	0.86	0.95	0.87	0.93	0.86	0.88	0.87	0.93	0.82
전공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0.81	0.72	0.95	0.60	0.67	0.99	0.78	0.92	0.84	0.76	0.93	0.81	0.76	0.85
	0.92	0.93	0.96	0.70	0.84	0.99	0.94	0.99	0.88	0.92	0.97	0.88	0.92	0.93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1.93	1.78	1.80	1.73	1.99	1.89	1.99	2.07	2.19	1.88	2.01	1.96	1.88	1.97
	0.83	0.81	0.89	0.82	0.76	0.81	0.88	0.83	0.71	0.84	0.85	0.79	0.85	0.81
시험, 학점, 과제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	1.35	1.56	1.09	1.22	1.35	1.00	1.58	1.43	1.36	1.45	1.28	1.25	1.25	1.42
	0.99	0.93	1.01	0.98	0.98	0.96	1.04	1.00	0.94	0.99	1.03	0.96	1.03	0.96
전 체 평 균	1.23	1.28	1.19	1.21	1.16	1.16	1.25	1.30	1.22	1.28	1.18	1.19	1.17	1.27
	0.51	0.50	0.58	0.50	0.42	0.52	0.56	0.50	0.50	0.49	0.53	0.52	0.54	0.48

이를 대학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은 자연과학 대학으로서 1.30이며, 그 다음이 인문대학(1.28), 해양대학(1.25)의 순으로서 각 대학 이 1.15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1학년(1.28)에 비해 3학년(1.19)이 문제 점수가 약간 낮다.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모른다'와 '계획성 없는 학교생활'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큰 문제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공이 적성에 안맞는다'와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에서는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 수록 전공과 깊이 관련되고 보다 계획성있는 학업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로는 남학생(1.17)이 여학생(1.27)보다 더 낮은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계획성있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8> 교양 및 여가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 분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교 양, 상 식 이 부 족 하 다	1.22	1.33	1.21	1.35	1.29	1.13	1.09	1.17	1.18	1.21	1.11	1.32	0.97	1.40	
	0.84	0.86	0.89	0.79	0.86	0.86	0.87	0.79	0.74	0.84	0.83	0.83	0.86	0.77	
춤이나 노래를 할 줄 몰라서 아쉬울 때가 있다	0.84	1.04	0.84	0.98	0.84	0.76	0.80	0.69	0.79	0.82	0.84	0.87	0.74	0.91	
	0.94	0.95	0.93	0.96	0.93	0.98	1.03	0.85	0.94	0.93	0.98	0.93	0.93	0.94	
뚜렷한 취미나 특기가 없다	0.83	0.95	0.89	0.90	0.87	0.55	0.77	0.82	0.78	0.85	0.73	0.87	0.61	0.98	
	0.94	1.00	0.89	0.91	0.99	0.88	0.94	0.92	0.87	0.96	0.90	0.92	0.89	0.94	
씨클 활동을 원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	0.47	0.43	0.71	0.51	0.42	0.43	0.44	0.43	0.43	0.47	0.54	0.42	0.43	0.50	
	0.87	0.88	1.00	0.89	0.82	0.81	0.86	0.83	0.84	0.86	0.95	0.82	0.86	0.88	
한 두 가지 악기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 때가 있다	1.31	1.40	1.40	1.49	1.15	1.30	1.26	1.29	1.13	1.32	1.29	1.28	1.13	1.43	
	1.06	1.08	1.06	1.05	1.01	1.06	1.08	1.08	1.05	1.07	1.08	1.03	1.04	1.06	
여가를 활용할 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0.95	0.95	0.95	1.06	0.98	0.99	0.95	0.97	0.76	1.05	0.99	0.79	0.77	1.09	
	0.96	0.93	0.98	0.96	0.96	1.02	0.96	0.98	0.89	1.00	0.95	0.89	0.92	0.97	
보람있는 토론을 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	1.41	1.56	1.35	1.52	1.46	1.46	1.31	1.35	1.47	1.13	1.45	1.36	1.21	1.56	
	1.02	0.99	1.06	1.03	0.96	0.96	1.03	1.07	1.02	0.99	1.02	1.02	1.08	0.95	
정신적 수양이 부족함을 느낀다	1.34	1.52	1.43	1.48	1.36	1.13	1.19	1.36	1.08	1.33	1.29	1.38	1.19	1.45	
	1.00	0.88	1.08	0.89	0.98	1.02	1.06	1.01	0.98	1.02	0.96	0.98	1.04	0.95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운동이 없다	0.51	0.69	0.48	0.50	0.46	0.51	0.48	0.54	0.30	0.48	0.53	0.55	0.28	0.68	
	0.86	0.95	0.88	0.82	0.84	0.92	0.87	0.86	0.64	0.82	0.92	0.88	0.68	0.94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	0.77	0.81	0.69	0.82	0.78	0.79	0.95	0.74	0.58	0.75	0.66	0.88	0.61	0.88	
	0.89	0.87	0.87	0.86	0.94	0.97	1.04	0.82	0.78	0.88	0.89	0.89	0.90	0.86	
전 체 평 균	0.96	1.07	0.99	1.06	0.96	0.89	0.93	0.94	0.81	0.97	0.94	0.97	0.79	1.09	
	0.54	0.53	0.58	0.47	0.55	0.55	0.59	0.55	0.43	0.54	0.53	0.56	0.53	0.52	

⑦ 교양 및 여가 영역

<표-8>의 교양 및 여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보람있는 토론 기회 부족'이 1.41이고, 그 다음이 '정신적 수양 부족'(1.34), '악기 못 배운 것 후회한다' (1.31), '교양, 상식이 부족하다'(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시절에 못이룬 갖가지 활동을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씨클활동을 못하고 있다'(0.47), '할 줄 아는 운동이 없다'(0.51)등의 항목에는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대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대학은 인문대학(1.07)이며, 그 다음이 경상대학(1.06), 법정대학(0.99), 사범대학(0.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간에는 문제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여가활동 방법 몰라 시간낭비'와 '보람있는 토론 기회 부족'에서는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문제점수가 높다. 이러한 경향은 1학년은 아직 대학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거나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0.79)이 여학생(1.09)에 비해 다소 낮으며, 특히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와 '정신적 수양의 부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표-9> 진로 및 취업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문항내용	구분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내가 과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1.41	1.49	1.41	1.22	1.20	1.54	1.25	1.60	1.33	1.36	1.35	1.51	1.13	1.60
취직을 해야겠는데 학 점이 나빠서 걱정이다		0.98	0.97	1.01	0.90	0.93	1.05	1.04	0.93	0.95	0.98	0.97	0.97	1.03	0.89
졸업후의 확실한 진로를 결정못해서 고민이다		0.70	0.72	0.66	0.59	0.59	0.89	0.60	0.79	0.75	0.58	0.80	0.81	0.71	0.70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0.88	0.85	0.95	0.71	0.81	0.98	0.90	0.89	0.92	0.84	0.91	0.90	0.94	0.84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모르겠다		1.05	1.08	0.96	1.02	0.79	1.05	1.05	1.23	1.14	1.00	1.04	1.14	0.99	1.10
고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 일을 해볼 만한 능력 실력도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		1.04	1.04	1.10	0.96	1.04	1.07	1.00	1.05	0.98	1.03	1.01	1.08	1.04	1.04
내 전공과 졸업후 활동하고 싶 은 분야가 서로 맞지 않는다		0.90	0.98	0.79	0.88	0.67	0.93	0.94	0.98	0.80	0.89	0.86	0.94	0.83	0.95
병역 군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1.00	1.03	0.97	0.92	0.95	1.04	1.03	1.05	0.97	1.01	0.97	1.03	0.99	1.01
나의 진로나, 취업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역부족, 무력감을 느낀다		1.18	1.24	0.95	1.44	1.00	1.11	1.23	1.32	1.08	1.22	1.12	1.16	1.01	1.30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1.01	0.97	1.02	1.00	1.00	1.06	1.01	1.01	0.92	1.01	1.02	1.00	1.04	0.97
내 전공과 졸업후 활동하고 싶 은 분야가 서로 맞지 않는다		1.08	1.32	0.99	1.18	0.88	1.07	1.07	1.15	0.81	1.09	0.98	1.14	0.82	1.26
내 전공과 졸업후 활동하고 싶 은 분야가 서로 맞지 않는다		1.00	0.99	1.06	0.94	0.96	1.00	0.94	1.02	0.94	1.01	0.99	0.99	0.98	0.97
병역 군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0.82	0.68	1.00	0.46	0.57	1.07	0.73	0.94	1.08	0.73	0.91	0.87	0.79	0.83
나의 진로나, 취업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역부족, 무력감을 느낀다		1.04	0.95	1.17	0.80	0.91	1.13	1.05	1.09	1.03	1.04	1.02	1.05	1.03	1.05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0.23	0.14	0.32	0.27	0.24	0.24	0.30	0.17	0.31	0.34	0.26	0.06	0.53	0.02
나의 진로나, 취업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역부족, 무력감을 느낀다		0.69	0.52	0.83	0.78	0.71	0.69	0.73	0.58	0.79	0.81	0.73	0.36	0.97	0.24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0.80	0.94	0.88	0.70	0.62	0.83	0.83	0.86	0.61	0.73	0.81	0.91	0.60	0.95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0.93	0.91	0.91	0.91	0.87	0.99	0.97	0.96	0.86	0.94	0.91	0.92	0.89	0.93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1.02	1.10	1.06	1.16	0.84	0.92	0.84	1.10	1.03	1.12	0.88	0.97	0.82	1.17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1.02	1.00	1.11	0.97	0.99	1.03	1.00	1.03	1.02	1.03	0.99	1.03	1.04	0.99
전 체 평 균		0.91	0.95	0.90	0.87	0.74	0.96	0.88	1.00	0.91	0.90	0.89	0.94	0.82	0.98
		0.60	0.59	0.68	0.50	0.52	0.64	0.61	0.61	0.57	0.59	0.59	0.61	0.63	0.56

⑧ 진로 및 취업 영역

<표-9>의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치열한 경쟁에서 취직할지 걱정이다'에 1.41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방법 모른다'에 1.18,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하다'에 1.08, '졸업후의 진로 고민'이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문제로 고민이다' 0.23이나 '취업 원하나 학점이 나쁘다' 0.70에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자연과학대학이 1.0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농과대학 0.96, 인문대학(0.95), 공과대학(0.91)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문제정도는 매우 낮다. 이를 항목별로 관련지어 보면 '치열한 경쟁에서 취직할지 걱정이다'에는 자연대학이 1.6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농과대학(1.54), 인문대학(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간에 별차이가 없으나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치열한 경쟁에서 취직할지 걱정이다'에서는 1학년이 1.36, 2학년이 1.35이나 3학년은 1.51로서 취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 취업에 대한 무력감'에서도 1학년은 0.73, 2학년은 0.81이나 3학년은 0.91로서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0.98)이 남학생(0.82)에 비해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치열한 경쟁에서 취직할지 걱정이다'에서는 남학생이 1.13임에 비하여 여학생은 1.60으로서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진로, 취업에 대한 무력감'에서도 남학생은 0.60이나 여학생은 0.95로서 진로 및 취업이 남성 위주라는 종래 관념에서 벗어나 오히려 여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⑨ 종교 및 가치관 영역

<표-10>의 종교 및 가치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친구들과 가치관단이 다르다'에 1.04로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0.95이하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대학생활에서 종교 및 가치관 문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문제로서는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대학은 인문대학으로서 0.84이며, 그 다음으로 법정대학(0.80), 경상대학(0.73), 자연과학대학(0.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3학년도 1학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 및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생의 본질몰라 고민'이라는 항목만은 3학년이 더 높은 문제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0.63)이 여학생(0.79)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볼 때, '종교로 인한 회의와 갈등'에서 남학생(0.19)이 여학생(0.15)에 비해 다소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10> 종교 및 가치관 문항의 문제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아직도 나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	0.95	1.01	1.01	1.01	0.88	1.02	0.92	0.93	0.81	1.04	0.82	0.93	0.77	1.08
내 나뉠의 생활철학이 없어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0.82	0.88	0.98	0.88	0.76	0.70	0.86	0.79	0.69	0.84	0.75	0.86	0.68	0.93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되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0.75	0.92	0.78	0.69	0.78	0.58	0.74	0.72	0.65	0.81	0.69	0.70	0.60	0.86
내 인생의 뚜렷한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0.83	1.01	0.85	0.76	0.70	0.75	0.77	0.88	0.74	0.90	0.77	0.77	0.68	0.93
친구들과 가치판단이 다른 것 같다	1.04	1.08	1.04	0.98	1.10	1.14	1.02	1.00	0.99	1.03	1.13	1.00	1.02	1.06
이상과 현실의 차가 심해서 어디서 기준을 두고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0.65	0.82	0.75	0.63	0.53	0.65	0.48	0.63	0.59	0.67	0.60	0.66	0.61	0.68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없어 고민하는 때가 있다	0.88	0.94	0.89	0.79	0.84	0.87	0.83	0.89	0.87	0.94	0.82	0.83	0.92	0.84
현재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한 회의와 갈등이 있다	0.90	1.19	0.96	0.93	0.79	0.64	0.92	0.89	0.65	0.92	0.80	0.94	0.80	0.97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0.95	0.95	0.98	0.87	0.92	0.93	1.03	0.95	0.86	0.97	0.90	0.96	0.98	0.93
종교를 가지고 싶지만 쉽게 믿음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 안타깝다	0.17	0.22	0.31	0.17	0.06	0.16	0.13	0.16	0.06	0.17	0.19	0.15	0.19	0.15
전 체 평 균	0.56	0.66	0.76	0.63	0.27	0.51	0.50	0.54	0.29	0.55	0.60	0.53	0.62	0.51
	0.79	0.91	0.90	0.93	0.74	0.84	0.64	0.75	0.56	0.83	0.76	0.76	0.62	0.91
	0.92	1.00	0.95	0.91	0.96	0.98	0.83	0.88	0.78	0.97	0.91	0.87	0.90	0.92
	0.33	0.35	0.39	0.30	0.30	0.34	0.33	0.37	0.23	0.32	0.27	0.39	0.33	0.34
	0.76	0.81	0.78	0.75	0.73	0.78	0.82	0.76	0.66	0.75	0.68	0.84	0.79	0.75
	0.72	0.84	0.80	0.73	0.66	0.68	0.68	0.71	0.60	0.75	0.67	0.72	0.63	0.79
	0.53	0.55	0.54	0.48	0.52	0.61	0.49	0.54	0.49	0.55	0.51	0.52	0.55	0.51

2) 영역별 분석

각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내의 문항들의 문제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말하며, 그 범위는 0점에서 30점 사이이다. <표-11>에 의하면 제주대학생들은 '학업생활' 12.30에 가장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건강'(11.01), '교양 및 여가'(9.64), '진로 및 취업'(9.11)에서도 비교적 높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 및 가정'(7.37), '경제'(7.14), '대인관계'(6.92)에는 문제의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은 인문대학이 88.63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법정대학(80.74), 경상대학(80.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적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은 공과대학(73.13)이다. 이를 영역별로 관련지어 보면, 건강영역에서는 인문대학이 가장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났고(13.58), 경제영역에는 인문대학(7.95), 부모 및 가정에는 인문대학(8.23), 대인관계에는 인문대학(7.44), 성격에는 인문대학(10.65), 학업생활에는 자연과학대학(13.02), 교양 및 여가에는 인문대학(10.68), 진로 및 취업에는 자연과학대학(10.03), 종교 및 가치관에는 인문대학(8.35)이 가장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의식에 대한 각 영역과 대학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소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5$).

<표-11>

대학별 문제점수 평균값

문항내용	구 분	전체	대 학 별								F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건강	N=864	11.01	13.58	11.61	10.45	10.12	10.49	9.49	11.06	9.51	5.91**
		6.12	6.04	6.46	5.67	6.15	6.09	5.78	5.73	6.14	
경제	N=865	7.14	7.95	7.17	7.41	6.06	7.26	7.02	7.22	6.69	1.97
		4.21	4.61	4.29	3.77	4.22	4.10	4.53	4.22	3.21	
부모 및 가정	N=867	7.37	8.23	7.02	8.21	7.59	6.77	6.55	7.30	6.81	2.10*
		4.52	4.94	4.82	4.79	4.14	4.71	4.34	4.06	4.26	
대인관계	N=869	6.92	7.44	6.99	6.78	7.06	6.17	7.09	6.96	6.35	0.70
		4.94	5.53	5.04	5.02	4.76	4.71	4.94	5.03	3.79	
성격	N=869	9.28	10.65	9.48	9.65	8.84	9.08	9.06	8.75	8.39	2.18*
		5.29	5.36	5.63	4.92	4.50	6.17	5.87	5.02	4.66	
학업생활	N=855	12.30	12.78	11.92	12.05	11.57	11.61	12.49	13.02	12.16	1.33
		5.10	4.95	5.83	5.00	4.22	5.16	5.60	5.03	4.95	
교양 및 여가	N=864	9.64	10.68	9.85	10.61	9.63	8.89	9.30	9.42	8.13	2.39*
		5.42	5.35	5.78	4.74	5.49	5.52	5.89	5.48	4.34	
진로 및 취업	N=854	9.11	9.52	8.99	8.71	7.37	9.64	8.76	10.03	9.13	2.19*
		5.97	5.85	6.78	4.96	5.19	6.37	6.14	6.08	5.66	
종교 및 가치관	N=860	7.22	8.35	7.96	7.26	6.64	6.81	6.82	7.11	5.96	2.21*
		5.34	5.52	5.37	4.75	5.20	6.09	4.90	5.44	4.85	
총 점		79.30	88.63	80.74	80.49	74.73	76.55	76.35	78.90	73.13	2.52*
		32.76	33.83	36.75	30.89	30.01	37.28	34.03	30.06	26.78	

문제점수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 79.95, 2학년 75.19, 3학년 81.43으로서 3학년이 가장 문제의식이 높으며,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의미있는 차이($p > 0.05$)를 보인 문항과 관련지어 보면, 경제영역에서는 1학년 6.92, 2학년 6.80, 3학년 7.71로서 1,2학년과 3학년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고학년이라는 부담과 더불어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격에서는 1학년이 9.00, 2학년이 8.83, 3학년에 10.03으로서 1,2학년과 3학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항에서도 3학년에 특히 문제의식이 높은 것은 경제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업생활에서는 1학년이 12.82, 2학년이 11.79, 3학년이 11.93으로 나타나 2,3학년에 비해 1학년이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대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으로서 학과공부와 동아리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식에 관한 그 외 문항은 각 영역과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문제점수를 성별로 보면,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자(86.79)가 남자(69.02)보다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p > 0.01$), 그 외 항목별로 모두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고 있다.

<표-12>

학년별·성별 문제점수 평균값

문항내용	구 분	학 년 별				성 별		
		1학년	2학년	3학년	F	남	여	F
건 강	N=864	10.98	10.65	11.32	0.69	8.02	13.10	172.49**
		6.11	6.43	5.92		5.55	5.62	
경 제	N=865	6.92	6.80	7.71	3.70*	6.52	7.58	13.36**
		3.87	4.08	4.72		4.17	4.19	
부모 및 가정	N=867	7.69	7.05	7.13	1.84	6.60	7.92	18.33**
		4.61	4.52	4.39		4.88	4.17	
대인관계	N=869	6.99	6.52	7.11	0.89	6.33	7.34	8.86**
		5.02	4.81	4.92		5.13	4.76	
성 격	N=869	9.00	8.83	10.03	4.02*	8.18	10.08	28.01**
		5.08	5.44	5.43		5.28	5.16	
학업생활	N=855	12.82	11.79	11.93	3.76*	11.71	12.72	8.27**
		4.86	5.33	5.22		5.41	4.83	
교양 및 여가	N=864	9.72	9.37	9.72	0.32	7.90	10.88	68.76**
		5.36	5.34	5.57		5.30	5.15	
진로 및 취업	N=854	8.97	8.93	9.43	0.56	8.16	9.80	16.07**
		5.92	5.92	6.09		6.28	5.64	
종교 및 가치관	N=860	7.49	6.73	7.17	1.37	6.28	7.89	19.42**
		5.50	5.13	5.25		5.54	5.09	
총 점		79.95	75.19	81.43	2.10	69.02	86.79	62.82**
		32.01	32.65	33.77		33.44	30.14	

2. 문제해결 노력 정도에 대한 결과

1) 문항별 분석

① 건강 영역

<표-13>의 건강 영역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항목은 '운동이 부족하다' 1.12이며, 그 다음이 '쉽게 피곤을 느낀다'(1.06),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0.96), '위장이 나쁘다'(0.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노력점수로는 '생리불순'(0.36), '잔병'(0.52), '빈혈'(0.53)이다. 이런 순위의 결과는 문제점수의 순위와도 관련이 있어서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문대학이 0.93으로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상대학 0.76, 자연과학대학 0.75, 사범대학 0.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별 노력점수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위장이 나쁘다'에서 인문대학이 1.01임에 비하여 다른 대학은 0.82이하의 노력점수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잔병이 많다'에는 1학년이 2,3학년에 비해 더 노력하고 있으며, '생리불순'의 경우는 1학년이 0.43, 2학년 0.33, 3학년 0.29로서 학년이 높을수록 생리적으로 안정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부족', '편두통'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건강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건강영역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문항내용	구분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운동이 부족하다		1.12	1.20	0.96	1.15	1.24	1.12	1.01	1.15	1.06	1.09	1.12	1.16	0.95	1.24
		0.95	0.94	0.86	1.01	1.02	1.01	0.94	0.94	0.96	0.99	0.96	0.89	0.98	0.92
빈혈(현기증)이 있다		0.53	0.58	0.52	0.59	0.53	0.43	0.40	0.61	0.50	0.52	0.54	0.53	0.33	0.67
		0.87	0.92	0.88	0.87	0.89	0.78	0.82	0.88	0.83	0.87	0.89	0.85	0.75	0.92
(편)두통이 있다		0.59	0.80	0.63	0.41	0.54	0.57	0.39	0.62	0.58	0.53	0.67	0.62	0.37	0.76
		0.90	0.92	0.93	0.86	0.91	0.85	0.82	0.90	0.92	0.85	0.94	0.94	0.77	0.95
쉽게 피곤을 느낀다		1.06	1.35	0.97	1.20	1.05	0.95	0.80	1.05	0.96	1.03	1.03	1.14	0.86	1.20
		1.03	1.07	1.07	1.08	1.05	1.00	1.01	0.97	0.91	1.04	1.03	1.02	1.02	1.02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 때가 있다		0.96	1.34	0.97	1.01	0.88	0.86	0.68	0.96	0.68	0.93	0.89	1.04	0.71	1.13
		0.96	1.00	0.97	0.95	0.99	0.95	0.88	0.87	0.96	0.96	0.95	0.97	0.91	0.96
위장이 나쁘다		0.76	1.01	0.72	0.77	0.72	0.82	0.50	0.75	0.63	0.69	0.77	0.84	0.67	0.82
		1.00	1.09	1.03	0.99	1.01	1.07	0.80	0.97	0.92	0.98	1.01	1.03	1.01	0.99
잔병이 많다		0.52	0.72	0.47	0.60	0.44	0.43	0.33	0.51	0.54	0.56	0.47	0.48	0.43	0.58
		0.85	0.97	0.76	0.98	0.81	0.72	0.71	0.84	0.90	0.89	0.84	0.80	0.81	0.88
생리불순(생리통)이 있다		0.36	0.54	0.27	0.53	0.38	0.29	0.22	0.38	0.20	0.43	0.33	0.29	0.02	0.60
		0.80	0.95	0.56	1.00	0.84	0.75	0.65	0.81	0.56	0.85	0.80	0.71	0.18	0.96
허리, 다리가 아프다		0.66	0.92	0.67	0.68	0.57	0.61	0.42	0.64	0.64	0.68	0.64	0.65	0.61	0.70
		0.90	1.00	0.93	0.91	0.92	0.86	0.81	0.88	0.77	0.90	0.89	0.92	0.89	0.91
체력이 딸린다		0.76	0.88	0.73	0.86	0.80	0.60	0.64	0.78	0.73	0.79	0.71	0.77	0.69	0.81
		0.95	1.02	0.90	1.03	0.98	0.84	0.92	0.93	0.95	0.99	0.93	0.91	0.93	0.96
전체 평균		0.73	0.93	0.69	0.76	0.71	0.67	0.54	0.75	0.65	0.72	0.71	0.75	0.56	0.85
		0.53	0.55	0.54	0.52	0.55	0.52	0.49	0.49	0.49	0.53	0.58	0.48	0.50	0.52

* 각 문항의 위의 것은 노력점수평균이고, 아래는 표준편차임.

② 경제 영역

<표-14>의 경제 영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는 항목은 '스스로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 1.17이다.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해결노력점수에서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경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근거로는 '공부 계속 원하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 0.15의 항목이나 '학비 때문에 빚있다' 0.07의 항목이 가장 낮은 노력점수라는 점과 관련된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문대학이 0.66으로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상대학(0.62), 농과대학·자연과학대학(0.56), 해양대학(0.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별 노력점수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인문대학의 경우는

‘스스로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 항목과 ‘용돈이 부족하다’에서 가장 많은 노력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같은 영역의 문제점수와 관련지어 보면 문제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대학도 문제점수가 높을 경우 노력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노력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직을 구하기 어렵다’에서는 1학년이 0.48, 2학년 0.52, 3학년 0.69로서 3학년의 경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용돈이 부족하다’에 남학생 0.92, 여학생 1.22로 그 차이가 크며, ‘부직 구하기가 어렵다’에 대해서는 남학생 0.41, 여학생 0.65로 나타나 여학생이 개인 또는 가정 경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경제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4> 경제영역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스스로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	1.17	1.32	1.03	1.30	1.02	1.11	1.27	1.18	1.10	1.11	1.07	1.32	1.10	1.22	
	1.02	1.06	0.99	0.91	1.12	1.03	1.08	0.98	0.96	1.04	1.04	0.97	1.05	1.00	
용 돈 이 부 족 하 다	1.09	1.32	0.88	1.14	0.92	1.07	1.08	1.17	1.04	1.12	1.02	1.12	0.92	1.22	
	1.05	1.06	0.94	1.09	1.06	1.08	1.14	1.03	1.00	1.06	1.01	1.06	1.04	1.04	
하숙비, 또는 자취 생활비가 많이 든다	0.41	0.46	0.32	0.39	0.35	0.39	0.43	0.44	0.43	0.35	0.35	0.54	0.40	0.41	
	0.84	0.88	0.72	0.86	0.84	0.81	0.91	0.84	0.90	0.79	0.77	0.94	0.88	0.82	
불필요한 일에 돈을 쓰 고 후회하는 때가 있다	1.11	1.27	1.05	1.29	1.05	1.00	1.14	1.08	1.01	1.13	1.03	1.14	1.04	1.16	
	0.95	0.96	0.93	0.93	0.95	0.88	1.02	0.94	0.96	0.96	0.95	0.93	0.97	0.93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취직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감동을 겪고 있다	0.15	0.22	0.13	0.16	0.14	0.18	0.11	0.15	0.09	0.10	0.11	0.24	0.13	0.17	
	0.52	0.63	0.41	0.51	0.55	0.60	0.49	0.50	0.40	0.46	0.46	0.62	0.48	0.55	
집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가 계에 보태야 하는 부담이 있다	0.13	0.19	0.17	0.11	0.15	0.07	0.13	0.08	0.10	0.13	0.11	0.13	0.13	0.12	
	0.48	0.61	0.52	0.42	0.56	0.30	0.52	0.38	0.44	0.50	0.46	0.48	0.50	0.47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직, 또는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	0.51	0.53	0.41	0.48	0.74	0.61	0.43	0.48	0.39	0.44	0.46	0.65	0.45	0.56	
	0.93	0.89	0.83	0.86	1.16	1.06	0.80	0.95	0.74	0.87	0.92	1.00	0.89	0.96	
부 직(아르바이트)을 구 하 기 가 어 렵 다	0.55	0.57	0.46	0.75	0.41	0.51	0.50	0.57	0.70	0.48	0.52	0.69	0.41	0.65	
	0.83	0.83	0.78	0.96	0.81	0.81	0.79	0.81	0.86	0.79	0.84	0.87	0.79	0.85	
학비 때문에 빚을 지 고 있 다	0.07	0.13	0.05	0.02	0.05	0.18	0.02	0.05	0.06	0.06	0.07	0.09	0.08	0.06	
	0.34	0.52	0.25	0.16	0.25	0.58	0.15	0.21	0.29	0.32	0.33	0.38	0.37	0.32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 낀 다	0.46	0.65	0.34	0.71	0.40	0.45	0.35	0.41	0.36	0.43	0.43	0.53	0.35	0.54	
	0.82	0.96	0.74	0.91	0.81	0.83	0.71	0.78	0.70	0.81	0.79	0.86	0.77	0.85	
전 체 평 균	0.56	0.66	0.48	0.62	0.52	0.56	0.55	0.56	0.53	0.53	0.52	0.64	0.50	0.61	
	0.39	0.43	0.37	0.37	0.36	0.42	0.37	0.40	0.35	0.37	0.38	0.41	0.38	0.40	

③부모 및 가정 영역

<표-15>의 영역에서 제주대학생들이 특히 노력하고 있는 항목은 '부모님께 신경을 못써 마음 걸린다' 1.36으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항목별 순위상 문제를 많이 느낀 항목이 또한 해결노력도 그 만큼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부모님께 기대가 커서 부담'(0.96),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다'(0.85)의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경상대학이 0.67로서 6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인문대학·자연과학대학(0.60), 사범대학(0.57)의 순이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0.59로서 1학년 0.58, 2학년 0.53보다 높으나, 2학년은 오히려 1학년보다 낮은 노력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학년의 경우 어느 정도 가정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꾀하면서도 아직 졸업 후의 사회 진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에는 1학년이 0.26, 2학년이 0.19, 3학년이 0.19이고,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부모님과 의견충돌'에서도 1학년은 0.89인 반면, 2학년은 0.77, 3학년은 0.8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0.63으로서 남학생의 0.50에 비해 더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제점수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현상으로서(문제점수; 여:1.24, 남:0.95), 부모 또는 가정에 대한 노력정도도 여학생이 더 높다.

<표-15> 부모 및 가정영역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커서 부담스럽다	0.96	1.06	0.98	1.00	1.06	0.76	0.89	1.03	0.74	0.98	0.90	0.99	0.84	1.05
내가 하는 일(행동)에 대해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다	0.61	0.70	0.64	0.75	0.54	0.43	0.38	0.75	0.50	0.64	0.56	0.60	0.47	0.71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0.21	0.21	0.20	0.23	0.12	0.29	0.19	0.21	0.26	0.18	0.25	0.22	0.18	0.23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0.17	0.17	0.19	0.27	0.17	0.15	0.08	0.13	0.23	0.16	0.17	0.18	0.12	0.21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하다	0.22	0.14	0.29	0.32	0.21	0.17	0.24	0.28	0.15	0.26	0.19	0.19	0.22	0.23
형제, 자매들의 문제로 걱정이 있다	0.36	0.38	0.31	0.43	0.29	0.39	0.35	0.38	0.38	0.37	0.30	0.40	0.36	0.36
가족중에 싫은 사람(나와 잘 안맞는 사람)이 있다	0.20	0.21	0.16	0.21	0.19	0.27	0.16	0.21	0.18	0.19	0.23	0.19	0.15	0.24
부모님께 신경을 못써드려 늘 마음에 걸린다	1.36	1.41	1.17	1.48	1.46	1.45	1.24	1.29	1.44	1.39	1.25	1.40	1.31	1.40
부모님과(또는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함을 느낀다	0.80	0.83	0.68	1.02	0.82	0.73	0.70	0.80	0.85	0.79	0.79	0.83	0.66	0.90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다	0.85	0.87	0.85	0.89	0.81	0.77	0.70	0.93	0.93	0.89	0.77	0.85	0.73	0.94
전체 평균	0.57	0.60	0.54	0.67	0.57	0.54	0.49	0.60	0.56	0.58	0.53	0.59	0.50	0.63
	0.40	0.39	0.41	0.43	0.38	0.44	0.39	0.37	0.38	0.39	0.39	0.40	0.41	0.37

④ 대인관계 영역

<표-16>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항목은 '리더쉽 부족' 1.07이며,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서 대인관계에서 리더쉽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은 '내성적이다'에 0.92, '사교성이 부족하다'에 0.91의 순으로 노력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0.78로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해양대학(0.73), 사범대학(0.72), 경상대학(0.68)의 순서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문대학의 경우 '사교성 부족'(1.05),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0.92), '학교안에 친한 친구가 없다'(0.26),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다'(0.91)등 5개 영역에서 타대학보다

더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3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더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이성 앞에서 자신이 없고 긴장된다'와 '남 앞에서 내 의사를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는 1학년이 2,3학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여학생(0.75)이 남학생(0.61)보다 노력의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사교성이 부족하다',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력점수가 높은 반면, '이성 앞에서는 자신이 없고 긴장된다'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노력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16> 대인관계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사교성이 부족하다	0.91	1.05	0.76	0.93	0.92	0.90	0.97	0.94	0.75	0.89	0.77	1.05	0.72	1.05
	0.96	1.01	0.90	0.98	0.97	0.96	0.95	0.96	0.95	0.97	0.87	1.01	0.92	0.98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	0.81	0.92	0.84	0.83	0.85	0.70	0.86	0.70	0.78	0.75	0.77	0.92	0.60	0.96
	0.96	1.02	0.96	1.00	0.96	0.88	1.01	0.90	0.95	0.96	0.91	0.98	0.88	0.99
학교안에 친한 친구가 없다	0.21	0.26	0.22	0.12	0.29	0.11	0.22	0.23	0.13	0.20	0.18	0.24	0.20	0.22
	0.60	0.71	0.51	0.43	0.75	0.49	0.58	0.62	0.43	0.58	0.53	0.66	0.58	0.61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0.35	0.38	0.39	0.38	0.40	0.27	0.41	0.33	0.18	0.34	0.29	0.40	0.26	0.41
	0.73	0.75	0.76	0.76	0.76	0.68	0.77	0.72	0.52	0.72	0.67	0.77	0.64	0.77
리더쉽이 부족하다	1.07	1.10	1.08	1.13	1.13	1.10	1.03	0.92	1.18	1.07	1.02	1.10	0.94	1.15
	0.94	0.97	0.94	0.99	0.99	0.86	0.96	0.91	0.92	0.95	0.96	0.92	0.96	0.92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 놓기 힘들다	0.77	0.91	0.70	0.74	0.75	0.80	0.72	0.76	0.69	0.78	0.69	0.80	0.69	0.82
	0.93	0.98	0.89	0.91	0.94	0.97	0.93	0.92	0.89	0.95	0.87	0.94	0.93	0.93
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	0.52	0.64	0.50	0.48	0.60	0.43	0.55	0.51	0.41	0.51	0.46	0.59	0.45	0.58
	0.82	0.94	0.81	0.78	0.83	0.72	0.84	0.77	0.76	0.81	0.78	0.85	0.80	0.83
내 성적이다	0.92	1.06	0.67	0.86	0.92	0.79	1.18	0.91	0.91	0.91	0.85	0.97	0.87	0.95
	0.99	1.05	0.88	0.92	0.96	0.99	1.08	0.98	0.96	1.00	0.97	0.98	0.98	0.99
이성 앞에서는 웬지 자신이 없고 긴장된다	0.63	0.66	0.59	0.59	0.61	0.62	0.65	0.64	0.68	0.71	0.59	0.54	0.72	0.56
	0.88	0.89	0.84	0.84	0.87	0.94	0.88	0.88	0.94	0.89	0.88	0.86	0.96	0.81
남 앞에서 내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겠다	0.75	0.81	0.69	0.78	0.69	0.57	0.76	0.83	0.78	0.80	0.70	0.72	0.68	0.80
	0.92	0.95	0.92	0.94	0.88	0.85	0.95	0.95	0.90	0.96	0.86	0.91	0.93	0.91
전 체 평 균	0.69	0.78	0.64	0.68	0.72	0.63	0.73	0.67	0.65	0.69	0.63	0.73	0.61	0.75
	0.50	0.52	0.51	0.50	0.50	0.50	0.51	0.51	0.40	0.49	0.49	0.51	0.51	0.48

⑤ 성격 영역

<표-17>의 성격 영역에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인 항목은 '즉흥적·충동적 경향이 있다' 1.15이며,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서 높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노력을 더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1.14, '자신감이 부족하다' 1.08의 경우도 문제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문제점수와 노력점수간에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1.17로서 전영역에 걸쳐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대학(1.06), 사범대학(0.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3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2학년에 비해 1학년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문제점수에서 3학년이 낮은 점수를 보였던 항목, '성질이 급하다'(1.22)는 노력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의식이 낮다고 반드시 노력도 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1.06)이 남학생(0.81)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제점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문제의식이 높고 그런 만큼 노력도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7> 성격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동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즉흥적, 충동적 경향이 있다	1.15 0.94	1.38 0.96	1.00 0.95	1.19 0.87	1.15 0.93	1.20 0.92	0.99 0.90	1.09 0.91	1.15 1.01	1.17 0.94	1.02 0.94	1.20 0.92	1.06 0.97	1.21 0.91
성질이 급하다	1.09 1.00	1.16 1.02	1.09 1.07	1.31 0.97	1.15 0.92	1.19 1.09	0.95 1.05	0.97 0.94	0.99 0.99	1.06 1.03	0.97 0.96	1.22 0.97	1.02 1.01	1.14 0.99
우유부단하다	0.95 0.98	1.10 1.03	0.98 1.05	1.11 0.97	0.94 0.94	0.99 1.00	0.94 1.03	0.79 0.90	0.80 0.91	0.94 1.00	0.91 0.96	1.00 0.98	0.95 1.02	1.95 0.95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자주 우울해진다)	1.14 1.04	1.49 1.05	1.04 1.05	1.25 1.03	1.18 0.99	0.99 1.04	1.02 1.03	1.05 1.02	0.98 1.04	1.11 1.04	1.10 1.03	1.21 1.06	0.91 1.04	1.31 1.01
자신감이 부족하다	1.08 0.97	1.29 1.00	1.04 0.99	1.09 0.92	1.07 1.03	0.99 0.96	0.94 1.02	1.09 0.93	0.96 0.91	1.09 0.97	1.00 0.98	1.11 0.97	0.85 0.95	1.24 0.96
신경질을 잘 낸다	0.96 1.03	1.11 1.07	0.96 1.00	1.10 1.03	0.99 1.07	0.77 1.00	0.81 1.02	0.94 1.02	0.90 0.96	0.96 1.06	0.87 0.97	1.02 1.02	0.74 0.98	1.11 1.03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하다	0.78 0.98	1.19 1.10	0.86 0.96	0.72 0.96	0.60 0.91	0.64 0.95	0.74 0.95	0.67 0.88	0.61 0.92	0.74 0.98	0.67 0.94	0.91 0.99	0.64 0.92	0.87 1.00
편견에 잘 빠진다	0.75 0.93	0.92 1.03	0.81 0.98	0.84 1.00	0.73 0.91	0.62 0.88	0.68 0.84	0.67 0.88	0.63 0.86	0.77 0.95	0.65 0.84	0.78 0.96	0.57 0.87	0.87 0.95
적극성, 활동성이 부족하다	0.80 0.94	0.97 1.05	0.65 0.84	0.73 0.86	0.78 0.90	0.79 0.98	0.94 1.03	0.80 0.93	0.66 0.86	0.79 0.97	0.78 0.92	0.83 0.92	0.69 0.91	0.88 0.96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0.93 0.95	1.18 0.99	0.75 0.89	1.09 0.96	0.95 0.95	0.73 0.90	0.89 0.93	0.91 0.96	0.80 0.89	0.88 0.96	0.90 0.94	1.00 0.93	0.77 0.95	1.04 0.93
전 체 평 균	0.96 0.59	1.17 0.61	0.91 0.66	1.06 0.55	0.95 0.53	0.89 0.63	0.90 0.61	0.89 0.55	0.84 0.50	0.95 0.57	0.88 0.60	1.03 0.60	0.81 0.56	1.06 0.59

⑥ 학업생활 영역

<표-18>의 학업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낸 것은 '내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1.25로서 이 항목이 문제점수에서는 1.57로서 두번째 순위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계획성있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1.13),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1.11)로서 역시 학업성취와 관련된 항목이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1.06으로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상대학(0.95), 법정대학(0.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별 문제점수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문제점수에서 자연과학대학은 (1.30)으로서 전체 대학에서 첫번째 순위였으나 노력점수에서는 0.86으로 다섯번째 순으로 나타나 대학간에도 문제점수와 노력점수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2학년은 1학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생활이 불만스러워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는 항목에서는 1학년(0.94), 2학년(0.85), 3학년(0.75) 순으로서 1학년의 경우는 문제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듯이 노력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나서 신입생의 특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0.96)이 남학생(0.80)보다 노력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학교생활 불만'에서는 남학생이 0.67이나 여학생은 0.99로서 여학생의 노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에서도 남학생은 0.38이나 여학생은 0.60으로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18>

학업생활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성적(학점)이 나쁘다	0.87	1.06	0.66	0.86	0.95	0.85	0.89	0.82	0.85	0.86	0.83	0.92	0.84	0.89
	0.93	0.98	0.91	0.91	0.91	0.95	0.96	0.92	0.80	0.91	0.92	0.97	0.94	0.92
학교생활이 불만스럽고 별다른 재미나 의욕을 못느끼겠다	0.86	0.97	0.76	0.93	0.87	0.81	0.81	0.90	0.71	0.94	0.85	0.75	0.67	0.99
	0.98	0.99	0.94	0.99	1.02	0.98	0.99	0.97	0.94	1.02	0.98	0.90	0.92	0.99
내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1.25	1.47	1.18	1.37	1.34	1.19	1.14	1.17	1.09	1.26	1.12	1.33	1.15	1.33
	0.95	0.95	1.03	0.89	0.87	1.04	0.92	0.97	0.83	0.96	0.95	0.94	0.97	0.93
대학에 다니는 것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	0.80	1.00	0.72	0.83	0.81	0.61	0.78	0.80	0.75	0.81	0.76	0.81	0.66	0.90
	0.97	1.07	0.92	0.94	0.94	0.92	0.98	0.96	0.91	1.01	0.92	0.93	0.90	1.00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다	0.88	1.11	0.83	1.09	0.64	0.74	0.97	0.81	0.85	0.88	0.84	0.90	0.78	0.94
	0.92	1.00	0.94	0.96	0.82	0.84	0.85	0.92	0.84	0.91	0.90	0.94	0.91	0.9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0.50	0.50	0.59	0.58	0.49	0.48	0.42	0.51	0.48	0.51	0.47	0.53	0.38	0.60
	0.83	0.82	0.90	0.90	0.82	0.83	0.77	0.81	0.83	0.83	0.82	0.83	0.76	0.87
계획성있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13	1.31	1.10	1.24	1.10	1.10	1.03	1.09	0.96	1.13	1.06	1.16	1.05	1.18
	0.94	0.96	1.00	0.90	0.92	0.99	0.95	0.91	0.86	0.96	0.88	0.95	0.96	0.93
전공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0.58	0.52	0.76	0.46	0.61	0.68	0.48	0.57	0.51	0.49	0.62	0.68	0.56	0.59
	0.89	0.88	1.06	0.81	0.91	0.97	0.74	0.89	0.80	0.86	0.89	0.94	0.88	0.90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1.11	1.25	1.01	1.25	0.97	1.24	1.21	1.06	0.96	1.02	1.17	1.20	1.09	1.13
	0.97	1.01	0.98	0.90	0.94	1.00	1.00	1.01	0.79	0.99	0.97	0.94	0.98	0.96
시험, 학점, 과제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	0.92	1.28	0.85	0.84	0.85	0.65	0.88	0.85	0.98	0.92	0.85	0.96	0.81	0.99
	0.98	1.07	0.93	0.93	0.91	1.00	1.03	0.92	0.89	0.97	0.96	0.99	0.99	0.96
전 체 평 균	0.89	1.06	0.84	0.95	0.87	0.83	0.86	0.86	0.81	0.89	0.85	0.93	0.80	0.96
	0.53	0.54	0.60	0.93	0.49	0.57	0.52	0.52	0.45	0.55	0.51	0.53	0.51	0.54

⑦ 교양 및 여가 영역

<표-19>의 교양 및 여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인 항목은 '교양, 상식이 부족하다'(1.22)이며,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 네번째 순위였으나 노력점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비록 문제의식은 높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신적 수양부족'(1.07), '보람있는 토론기회 부족'(0.85), '여가활용 못해 시간 낭비'(0.80)의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제점수에서도 높은 의식을 갖고 있어서 문제의식 만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0.80으로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문대학은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의식이 높은 만큼 노력도 상대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경상대학(0.76), 법정대학(0.68), 자연과학대학(0.64)의 순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제점수와도 일치한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노력점수가 0.6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학년의 0.68과는 별 차이가 없고 2학년이 0.63으로 가장 낮다. 이를 항목과 관련지어 보면, '정신적 수양 부족'과 '성에 대한 지식 부족'은 1,2학년에 비해 3학년의 노력점수가 높으나, '씨클활동을 원하나 하지 못함'이나 '여가활용 못해 시간 낭비'는 1학년이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높은 노력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양, 상식 부족', '여가활용 못해 시간 낭비', '할 줄 아는 운동이 없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양 및 여가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19> 교양 및 여가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전체	대학별									학년별			성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교양, 상식이 부족하다	1.22	1.49	1.15	1.36	1.17	1.06	1.08	1.16	1.18	1.21	1.14	1.27	0.94	1.41	
	0.93	0.96	0.94	0.94	0.94	0.92	0.90	0.92	0.84	0.98	0.87	0.90	0.92	0.89	
춤이나, 노래를 할 줄 몰라서 아쉬울 때가 있다	0.51	0.66	0.60	0.65	0.42	0.43	0.38	0.46	0.41	0.54	0.42	0.53	0.44	0.56	
	0.78	0.88	0.90	0.85	0.67	0.70	0.72	0.71	0.69	0.80	0.69	0.80	0.73	0.81	
뚜렷한 취미나 특기가 없다	0.56	0.65	0.64	0.57	0.56	0.39	0.56	0.52	0.54	0.57	0.52	0.58	0.40	0.67	
	0.81	0.84	0.83	0.85	0.83	0.74	0.84	0.80	0.75	0.83	0.77	0.82	0.72	0.86	
씨클활동을 원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	0.29	0.26	0.55	0.26	0.20	0.27	0.26	0.27	0.19	0.31	0.28	0.25	0.24	0.32	
	0.68	0.67	0.93	0.65	0.62	0.63	0.64	0.67	0.51	0.73	0.69	0.61	0.62	0.73	
한두가지 악기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 때가 있다	0.61	0.64	0.65	0.76	0.50	0.64	0.55	0.68	0.43	0.63	0.60	0.60	0.52	0.68	
	0.86	0.89	0.91	0.98	0.79	0.85	0.84	0.88	0.69	0.89	0.84	0.84	0.80	0.90	
여가를 활용할 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0.80	0.90	0.73	0.89	0.87	0.70	0.78	0.78	0.64	0.86	0.77	0.72	0.63	0.91	
	0.92	1.00	0.88	0.95	0.98	0.86	0.89	0.91	0.82	0.96	0.85	0.91	0.86	0.94	
보람있는 토론을 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0.85	0.94	0.84	0.90	0.75	0.94	0.90	0.80	0.75	0.84	0.87	0.86	0.77	0.91	
	0.89	0.88	0.93	0.99	0.80	0.97	0.88	0.88	0.83	0.88	0.93	0.88	0.91	0.88	
정신적 수양이 부족함을 느낀다	1.07	1.40	1.04	1.32	1.03	1.02	0.89	1.03	0.85	1.05	1.08	1.14	0.92	1.20	
	0.99	1.01	0.01	0.01	0.99	0.02	0.96	0.94	0.84	1.00	0.97	0.98	0.97	0.98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할 줄 아는 운동이 없다	0.29	0.41	0.24	0.38	0.26	0.25	0.24	0.31	0.18	0.31	0.26	0.30	0.17	0.38	
	0.67	0.79	0.62	0.73	0.67	0.60	0.59	0.67	0.50	0.68	0.60	0.69	0.52	0.74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	0.51	0.60	0.56	0.48	0.50	0.46	0.58	0.47	0.43	0.46	0.46	0.63	0.41	0.59	
	0.77	0.88	0.87	0.69	0.75	0.74	0.75	0.71	0.73	0.74	0.74	0.82	0.74	0.79	
전체 평균	0.67	0.80	0.68	0.76	0.63	0.62	0.62	0.64	0.56	0.68	0.63	0.69	0.54	0.76	
	0.46	0.44	0.54	0.43	0.47	0.41	0.46	0.46	0.37	0.47	0.41	0.48	0.41	0.46	

⑧ 진로 및 취업 영역

<표-20>의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치열한 경쟁에서 취직할지 걱정이다' 0.97이며,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현실적으로 치열한 취업경쟁을 실감하게 한다. 그 다음 노력점수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해 낼만한 능력에 대한 불안'(0.76), '졸업 후 진로 결정 고민'(0.72)의 순위로 나타났고, 이는 문제점수에서도 높은 경향을 보여서 대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분야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자연과학대학이 0.68로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농과대학(0.65), 경상대학·인문대학(0.64), 법정대학·공과대학(0.60)의 순으로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점수에서 보여준 우선 순위와도 거의 일치한다.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노력점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병역문제로 고민이다'에서는 3학년이 0.03으로서 1학년 0.28, 2학년의 0.16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군입대 시기상 1,2학년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반면, 3학년은 1,2학년 때 군에 입대한 후 복학을 한 입장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체 항목에서 여학생(0.65)이 남학생(0.57)보다 더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문제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장래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관념을 깨고 여학생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0> 진로 및 취업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내가 과연 치열한 경쟁을 돌고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0.97	1.08	1.00	0.94	0.85	1.00	0.78	1.06	0.90	0.93	0.90	1.08	0.83	1.07
취직을 해야겠는데 학 점이 나빠서 걱정이다	0.51	0.50	0.43	0.61	0.56	0.64	0.38	0.50	0.50	0.40	0.57	0.61	0.52	0.50
졸업후의 확실한 진로를 결정못해서 고민이다	0.80	0.79	0.78	0.86	0.90	0.95	0.67	0.71	0.73	0.75	0.81	0.84	0.84	0.77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0.72	0.70	0.68	0.80	0.59	0.74	0.68	0.81	0.73	0.64	0.72	0.83	0.69	0.74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모르겠다	0.92	0.92	0.94	1.02	0.92	0.93	0.89	0.92	0.83	0.90	0.87	0.98	0.92	0.92
하고싶은일이 있는데그일을 해낼만 한능력실력도 과연있는지모르겠다	0.63	0.69	0.55	0.63	0.41	0.69	0.64	0.69	0.68	0.61	0.66	0.63	0.61	0.64
내 전공과 졸업후 활동하고 싶 은 분야가 서로 맞지 않는다	0.87	0.91	0.86	0.85	0.74	0.92	0.85	0.91	0.84	0.85	0.86	0.89	0.88	0.86
병역(군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0.69	0.69	0.62	0.78	0.53	0.71	0.75	0.77	0.61	0.66	0.66	0.75	0.66	0.71
나의 진로나, 취업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역부족, 무력감을 느낀다	0.88	0.87	0.92	0.89	0.82	0.91	0.89	0.92	0.70	0.90	0.85	0.87	0.92	0.85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0.76	0.94	0.69	0.83	0.64	0.80	0.81	0.78	0.48	0.73	0.77	0.79	0.60	0.87
전체 평균	0.91	0.99	0.94	0.89	0.84	0.93	0.88	0.92	0.73	0.90	0.91	0.92	0.89	0.90
	0.57	0.43	0.62	0.48	0.45	0.73	0.45	0.67	0.75	0.45	0.72	0.63	0.55	0.58
	0.90	0.81	0.93	0.88	0.80	1.05	0.86	0.94	0.89	0.83	0.96	0.94	0.90	0.90
	0.17	0.08	0.23	0.21	0.22	0.12	0.24	0.13	0.25	0.28	0.16	0.03	0.38	0.03
	0.59	0.36	0.66	0.69	0.66	0.48	0.71	0.48	0.72	0.74	0.55	0.19	0.82	0.23
	0.59	0.68	0.70	0.49	0.44	0.58	0.55	0.66	0.43	0.49	0.63	0.70	0.42	0.71
	0.86	0.85	0.97	0.84	0.79	0.88	0.82	0.90	0.69	0.83	0.83	0.91	0.78	0.89
	0.59	0.62	0.51	0.74	0.44	0.51	0.57	0.65	0.66	0.63	0.50	0.60	0.51	0.64
	0.84	0.85	0.82	0.94	0.80	0.78	0.83	0.85	0.86	0.90	0.76	0.81	0.86	0.82
전체 평균	0.62	0.64	0.60	0.64	0.51	0.65	0.58	0.68	0.60	0.58	0.63	0.67	0.57	0.65
	0.50	0.48	0.54	0.46	0.44	0.52	0.51	0.56	0.47	0.50	0.49	0.51	0.53	0.49

⑨ 종교 및 가치관 영역

<표-21>의 종교 및 가치관 영역에서 가장 노력점수가 높은 항목은 '친구들과 가치 판단이 다르다' 0.96으로서 이 항목은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이며,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그 만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다음은 '아직도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하다' 0.91, '생활철학이 없어 혼란스럽다'(0.75), '인생의 본질을 몰라 고민이다'(0.7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제점수의 순위와도 일치되고 있어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노력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0.75로서 노력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상대학(0.71), 법정대학(0.64), 자연과학대학(0.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대학별 노력점수와 문제점수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노력점수가 가장 높고, 2학년이 가장 낮는데, 이는 같은 영역의 문제점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상과 현실의 차가 심해 혼란스럽다'는 항목은 문제점수에서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낮은 점수였으나 노력점수는 바대로 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학년은 대학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 대학에 대한 차이가 큰 반면에 3학년은 그 동안의 대학생활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수가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력점수에서 3학년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록 문제의식은 적다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은 더욱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를 좁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0.69)이 남학생(0.53)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다만 '현재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한 회의와 갈등'에서는 남학생(0.16)이 여학생(0.10)보다 다소 높은 노력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21> 종교 및 가치관 문항의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전체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아직도 나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	0.91	1.08	0.95	1.02	0.90	0.79	0.76	0.86	0.84	0.90	0.77	1.02	0.69	1.06
내 나름의 생활철학이 없 어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0.95	1.04	0.94	1.01	1.02	0.88	0.86	0.90	0.88	0.93	0.88	1.03	0.89	0.96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되 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0.75	0.92	0.78	0.68	0.78	0.58	0.74	0.72	0.65	0.81	0.69	0.70	0.60	0.86
내 인생의 뚜렷한 의미나 목적은 찾을 수가 없다	0.90	0.97	0.87	0.91	0.88	0.83	0.88	0.94	0.84	0.95	0.84	0.87	0.87	0.91
친구들과 가치판단 이 다른 것 같다	0.67	0.88	0.70	0.60	0.79	0.51	0.62	0.60	0.58	0.71	0.63	0.65	0.52	0.78
이상과 현실의 차가 심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0.92	1.02	0.97	0.86	0.96	0.87	0.85	0.86	0.82	0.94	0.87	0.91	0.86	0.94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없 어 고민하는 때가 있다	0.73	0.88	0.75	0.82	0.64	0.56	0.68	0.78	0.64	0.75	0.72	0.72	0.60	0.83
현재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한 회의와 갈등이 있다	0.91	0.95	0.93	0.97	0.84	0.85	0.91	0.94	0.83	0.93	0.87	0.91	0.86	0.93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 라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0.96	1.08	0.88	1.12	0.90	1.00	0.90	0.90	0.94	0.91	1.01	1.00	0.97	0.96
종교를 가지고 싶지만 쉽게 믿음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 안타깝다	0.98	1.03	0.96	0.98	0.97	1.04	0.96	0.92	0.99	0.97	0.94	1.01	1.01	0.95
종교를 가지고 싶지만 쉽게 믿음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 안타깝다	0.57	0.72	0.58	0.63	0.52	0.56	0.40	0.55	0.48	0.51	0.56	0.66	0.50	0.61
전 체 평 균	0.87	0.93	0.89	0.87	0.89	0.94	0.75	0.86	0.75	0.80	0.88	0.94	0.84	0.88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없 어 고민하는 때가 있다	0.75	1.08	0.69	0.89	0.62	0.49	0.70	0.75	0.54	0.77	0.67	0.77	0.65	0.82
현재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한 회의와 갈등이 있다	0.90	0.98	0.85	0.93	0.81	0.87	0.90	0.91	0.76	0.91	0.86	0.92	0.90	0.90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 라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0.13	0.16	0.25	0.06	0.04	0.15	0.11	0.13	0.06	0.13	0.17	0.09	0.16	0.10
종교를 가지고 싶지만 쉽게 믿음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 안타깝다	0.48	0.58	0.67	0.33	0.19	0.53	0.49	0.48	0.29	0.49	0.59	0.38	0.56	0.42
전 체 평 균	0.63	0.72	0.60	0.85	0.56	0.67	0.55	0.57	0.55	0.65	0.63	0.60	0.48	0.74
전 체 평 균	0.87	0.96	0.79	0.97	0.85	0.92	0.83	0.78	0.87	0.91	0.88	0.80	0.82	0.89
전 체 평 균	0.20	0.17	0.25	0.22	0.17	0.20	0.17	0.23	0.16	0.18	0.22	0.20	0.20	0.20
전 체 평 균	0.60	0.57	0.64	0.61	0.59	0.64	0.59	0.62	0.49	0.55	0.64	0.63	0.61	0.59
전 체 평 균	0.62	0.75	0.64	0.71	0.59	0.54	0.54	0.61	0.55	0.62	0.59	0.66	0.53	0.69
전 체 평 균	0.50	0.51	0.54	0.49	0.47	0.56	0.44	0.49	0.46	0.49	0.48	0.53	0.50	0.49

2) 영역별 분석

각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내의 문항들의 노력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말하며, 그 범위는 0점에서 30점 사이이다. <표-22>에 의하면 제주대학생들은 '성격'에 9.58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생활'(8.90), '건강'(7.28), '대인관계'(6.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5.62)나 '가정영역'(5.73)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영역별 문제점수와 비교해 보면 문제점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 노력점수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일치성을 보였다. 다만 '대인관계'에서는 문제점수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노력점수에서는 높게 나타나서 대학생활중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인 대학은 인문대학으로서 74.69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상대학(68.02), 자연과학대학(6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적은 노력점수를 보인 대학은 공과대학으로서 57.53이며, 이는 문제점수에서도 가장 적은 점수를 보여서 문제점수와 노력점수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α 학간의 노력점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역별로 보면 '건강'영역은 $p > 0.01$ 수준으로 전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제', '학업생활', '교양 및 여가', '종교 및 가치관'영역은 $p > 0.05$ 의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2>

대학별 노력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전체	대학별								F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건강 (N=851)	7.28	9.35	6.91	7.58	7.13	6.67	5.38	7.47	6.50	5.38**
	5.29	5.54	5.38	5.18	5.51	5.16	4.93	4.89	4.90	
경제 (N=850)	5.62	6.64	4.84	6.24	5.17	5.57	5.47	5.60	5.28	2.57*
	3.91	4.26	3.67	3.69	3.65	4.24	3.69	3.98	3.54	
부모 및 가정 (N=858)	5.73	5.96	5.44	6.67	5.66	5.42	4.91	5.98	5.64	1.48
	3.95	3.88	4.13	4.27	3.80	4.36	3.89	3.68	3.83	
대인관계 (N=855)	6.91	7.76	6.39	6.82	7.16	6.29	7.34	6.70	6.46	1.22
	4.99	5.18	5.08	5.03	5.02	5.01	5.12	5.06	3.96	
성격 (N=855)	9.58	11.74	9.09	10.58	9.53	8.90	8.99	8.87	8.48	4.22*
	5.89	6.10	6.57	5.48	5.26	6.28	6.07	5.53	5.01	
학업생활 (N=842)	8.90	10.59	8.38	9.49	8.66	8.33	8.58	8.59	8.14	2.79*
	5.34	5.39	5.96	5.31	4.87	5.73	5.23	5.24	4.46	
교양 및 여가 (N=855)	6.68	7.96	6.83	7.58	6.25	6.19	6.17	6.41	5.58	3.26*
	4.57	4.37	5.37	4.29	4.68	4.13	4.57	4.59	3.71	
진로 및 취업 (N=851)	6.18	6.40	6.03	6.37	5.12	6.52	5.84	6.82	5.98	1.26
	5.04	4.81	5.39	4.59	4.36	5.24	5.10	5.55	4.70	
종교 및 가치관 (N=0)	6.24	7.54	6.37	7.10	5.86	5.42	5.44	6.06	5.49	2.71*
	5.01	5.09	5.45	4.92	4.70	5.64	4.38	4.89	4.55	
총 점	62.84	74.69	59.62	68.02	60.09	59.44	59.10	62.11	57.53	3.84*
	30.52	30.19	33.60	29.26	28.43	32.88	30.26	29.57	26.14	

<표-23>에 의하면 학년별로는 3학년이 전반적으로 1,2학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노력정도가 더 낮아서 $p > 0.05$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점수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노력점수가 더 높은 항목은 '진로 및 취업' 영역으로서 이 분야

만은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영역은 '경제' 영역으로서 $p > 0.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격' 영역에서는 $p >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 및 취업' 영역($p > 0.05$)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 영역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3> 학년별·성별 노력점수 평균값

구 분 문항내용	학 년 별				성 별		
	1학년	2학년	3학년	F	남	여	F
전 강 N=864	7.18	7.13	7.53	0.44	5.63	8.45	63.14**
	5.32	5.84	4.83		5.00	5.18	
경 제 N=865	5.30	5.15	6.41	5.45**	4.97	6.08	16.95**
	3.74	3.80	4.10		3.75	3.95	
부모 및 가정 N=867	5.84	5.34	5.85	1.22	4.99	6.26	22.02**
	3.93	3.88	4.03		4.12	3.75	
대인관계 N=869	6.91	6.32	7.34	2.43	6.14	7.46	14.86**
	4.95	4.93	5.06		5.11	4.82	
성 격 N=869	9.46	8.84	10.28	3.56*	8.11	10.62	39.52**
	5.74	5.99	5.98		5.64	5.85	
학업생활 N=855	8.87	8.51	9.25	1.11	8.00	9.56	17.85**
	5.53	5.08	5.27		5.10	5.438	
교양 및 여가 N=864	6.75	6.29	6.86	0.98	5.36	7.61	52.99**
	4.66	4.07	4.78		4.13	4.64	
진로 및 취업 N=864	5.80	6.29	6.65	2.32	5.72	6.51	5.21*
	5.03	4.95	5.10		5.26	4.85	
종교 및 가치관 N=860	6.16	5.95	6.55	0.91	5.32	6.90	20.89**
	4.88	4.78	5.34		4.99	4.92	
총 점	61.90	58.79	67.26	4.34*	54.34	69.09	46.49**
	30.10	29.63	31.35		28.91	30.19	

3. 문제와 해결 노력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

차이점수란 문제와 해결노력간의 불일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점수에서 노력점수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차이점수가 크면 클수록 불일치가 심한 것으로 문제정도에 비해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차이가 음수이면 문제를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는 문항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영역별로 그 차이분석을 하였다.

영역별로 차이점수의 평균값, 최소값·최대값을 구하고, 이를 대학별, 학년별, 성별로 제시한 것이 <표-24>이다. 차이점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들은 '학업생활'(3.39), '건강'(3.71), '교양 및 여가'(2.98), '진로 및 취업'(2.94)로서 다른 영역에 비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및 가치관'은 0.95로서 차이점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 문제점수와 노력점수가 일치하며, '대인관계'(-0.01)나 '성격'(-0.30)에서는 적은 수치이지만 차이점수가 음수로 나타나 학생들이 대인관계나 성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법정대학이 21.53으로 가장 높은 차이점수를 보이고 있고, 경상대학이 10.28로 가장 적은 차이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대학은 문제정도에 비해 노력을 적게하는 편이나 경상대학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학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24>

대학별 차이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전체	최소값/최대값	대학별									F
			인대	법대	경대	사대	농대	해대	자대	공대		
건강 (N=851)	3.71	-11/27	4.20	4.75	2.62	3.00	3.82	4.11	3.62	3.01	1.96	
	5.09		5.30	5.44	4.81	5.34	5.13	5.37	4.64	4.36		
경제 (N=849)	1.48	-9/23	1.32	2.33	0.86	0.87	1.69	1.56	1.58	1.41	1.94	
	3.43		3.42	3.63	3.40	3.37	3.85	3.67	3.20	2.73		
부모 및 가정 (N=855)	1.62	-10/27	2.21	1.61	1.59	1.93	1.36	1.64	1.29	1.18	0.87	
	4.05		5.41	3.84	3.83	4.15	3.05	4.00	3.71	3.17		
대인관계 (N=854)	-0.01	-16/27	-0.31	0.64	-0.09	-0.10	-0.12	-0.25	0.18	-0.11	0.69	
	3.85		4.71	4.22	4.46	3.61	3.35	3.26	3.65	2.75		
성격 (N=855)	-0.30	-20/27	-1.14	0.36	-0.86	-0.69	0.18	0.14	-0.11	-0.09	1.73	
	4.37		5.08	5.33	4.30	3.62	4.84	4.00	3.85	3.17		
학업생활 (N=836)	3.39	-13/27	2.12	3.63	2.39	2.95	3.21	3.91	4.47	4.03	2.46*	
	5.82		6.35	6.16	5.09	5.19	6.18	5.29	6.19	4.66		
교양 및 여가 (N=852)	2.98	-11/22	2.76	3.15	3.10	3.38	2.76	3.09	3.02	2.55	0.36	
	4.40		4.42	4.60	5.09	4.80	4.01	4.16	4.43	3.39		
진로 및 취업 (N=846)	2.94	-13/26	3.12	3.10	2.29	2.25	3.12	2.99	3.23	3.15	0.63	
	5.00		5.26	5.53	4.44	4.40	5.74	4.67	4.96	4.65		
종교 및 가치관 (N=847)	0.95	-13/24	0.73	1.51	0.29	0.78	1.34	1.29	1.05	0.48	1.10	
	3.94		4.43	5.01	3.59	3.07	4.36	3.40	3.83	2.85		
총 점	1637	-64/154	1502	2153	1028	1491	1669	1796	1694	1560	1.09	
	2667		31.17	30.63	24.46	24.22	31.11	23.08	25.45	18.79		

<표-25>에 의하면 학년별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없으나 영역과 관련지어 보면, '학업생활'에서 학년간에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차이점수에 있어서 1학년이 3.93, 2학년이 3.31, 3학년이 2.67로서 1학년이 가장 높은 차이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에 비해 노력을 적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반면에 3학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의 경우는 학업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3학년은 문제해결에 스스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격'에서는 차이점수가 1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음수로 나타나 문제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전반적인 차이점수에서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영역에서는 여학생이 4.65, 남학생이 2.38로서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2>와 <표-13>에서 같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문제점수와 노력점수가 높기는 해도 문제에 비해 노력하는 정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남학생은 비록 여학생에 비해 노력점수가 낮으나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강'영역 만큼은 아니지만 '교양 및 여가'와 '진로 및 취업'에서도 여학생의 차이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아 $p >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25>

학년별·성별 차이점수 평균값

구분 문항내용	학 년 별				성 별		
	1학년	2학년	3학년	F	남	여	F
건 강 (N=851)	3.73	3.54	3.81	0.17	2.38	4.65	43.43**
	5.24	4.91	5.01		4.42	5.31	
경 제 (N=849)	1.57	1.61	1.25	0.90	1.52	1.45	0.10
	3.29	3.33	3.67		3.43	3.42	
부모 및 가정 (N=855)	1.85	1.60	1.31	1.44	1.60	1.64	0.02
	4.41	3.76	3.68		4.22	3.93	
대인관계 (N=854)	0.02	0.20	-0.19	0.62	0.16	-0.12	0.11
	3.77	3.75	4.05		3.94	3.79	
성 격 (N=855)	-0.51	0.02	-0.24	1.00	0.04	-0.55	3.74
	3.95	4.58	4.76		4.39	4.34	
학업생활 (N=836)	3.93	3.31	2.67	3.67*	3.64	3.20	1.15
	5.99	5.48	5.76		5.60	5.98	
교양 및 여가 (N=852)	3.01	3.06	2.89	0.10	2.52	3.31	6.62*
	4.59	4.03	4.38		3.81	4.75	
진로 및 취업 (N=846)	3.18	2.67	2.81	0.83	2.40	3.34	7.35*
	5.12	4.51	5.17		4.81	5.10	
종교 및 가치관 (N=847)	1.28	0.76	0.60	2.65	0.94	0.96	0.07
	3.94	3.51	4.20		3.72	4.09	
총 점	18.06	15.60	14.53	1.32	14.55	17.73	2.64
	26.60	24.14	28.50		25.68	27.33	

4. 문제해결 행동유형에 대한 분석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문항에 따라 해결방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에서는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4개로 범주화시켰다. 첫번째 유형은 '적극적 대처'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 자율적인 대응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 유형은 '대인의존적 대처'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지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째 유형은 '정서적 대처'인데, 자신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분전환을 꾀한다든지, 또는 그 문제를 보는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네번째 유형인 '체념 또는 회피'는 문제를 직면하려하지 않아서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에서 '해당없음'은 문제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1) 건강영역

<표-26>의 건강영역에서 문제해결유형을 살펴보면, '운동이 부족하다'(68.8), '빈혈이 있다'(19.5), '쉽게 피곤을 느낀다'(38.0), '허리, 다리가 아프다'(21.6), '체력이 딸린다'(46.1)의 항목에서는 '적극적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장이 나쁘다'(20.6), '잔병이 많다'(15.9)의 항목에서는 '대인의존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편두통이 있다'(15.6),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 때가 있다'(35.4)항목에서는 '정서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이 있다'(18.8)의 항목은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체념 또는 회피'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경우는 주로 여대생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여대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표-26> 건강영역의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 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 는 회피	무응답	계
운동이 부족하다	19.8 (173)	68.8 (600)	1.4 (12)	6.4 (56)	3.2 (28)	0.3 (3)	100.0 (872)
빈혈(현기증)이 있다	44.0 (384)	19.5 (170)	9.1 (79)	11.2 (98)	15.9 (139)	0.2 (2)	100.0 (872)
편두통이 있다	45.6 (398)	11.1 (97)	12.4 (108)	15.6 (136)	14.9 (130)	0.3 (3)	100.0 (872)
쉽게 피곤을 느낀다	23.3 (203)	38.0 (331)	2.6 (23)	23.9 (208)	12.0 (105)	0.2 (2)	100.0 (872)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 때가 있다	21.3 (186)	20.8 (181)	6.5 (57)	35.4 (309)	15.9 (139)	-	100.0 (872)
위장이 나쁘다	35.1 (306)	20.1 (175)	20.6 (180)	6.4 (56)	17.5 (153)	0.2 (2)	100.0 (872)
잔병이 많다	55.7 (486)	15.6 (136)	15.9 (139)	3.7 (32)	8.9 (78)	0.1 (1)	100.0 (872)
생리불순 생리통이 있다	56.7 (494)	8.5 (74)	10.4 (91)	4.7 (41)	18.8 (164)	0.9 (8)	100.0 (872)
허리, 다리가 아프다	33.6 (293)	21.6 (188)	13.1 (114)	11.5 (100)	20.1 (175)	0.2 (2)	100.0 (872)
체력이 딸린다	37.4 (326)	46.1 (402)	1.0 (9)	4.8 (42)	10.6 (92)	0.1 (1)	100.0 (872)

* ()안은 학생수 임

2) 경제영역

<표-27>의 경제영역에서는 영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해결행동에서 전 항목이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와 '불필요한 돈을 쓰고 후회한다'의 항목에서는 69.0% 이상이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경제의식에 관한 일면을 엿볼수 있다. 그러나 '부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렵다' 항목에서는 '적극적 대처'(22.4)와 더불어 '대인의존적 대처'(21.3)를 하고 있어서 부직에 관한 비록 적극적이지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에서도 '적극적 대처'(17.0)를 하기는 하지만 '정서적 대처'(14.6)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7> 경제영역의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는 회피	무응답	계
스스로 경제력이 없어 안타깝고 속상하다	21.6 (188)	69.0 (602)	0.6 (5)	3.0 (26)	5.8 (51)	-	100.0 (872)
용돈이 부족하다	28.0 (244)	63.9 (557)	0.2 (2)	3.0 (26)	4.7 (41)	0.2 (2)	100.0 (872)
하숙비, 또는 자취생활비가 많이 든다	72.9 (636)	23.9 (208)	0.8 (7)	1.6 (4)	0.8 (7)	0.8 (7)	100.0 (872)
불필요한 일에돈을 쓰고 후회하는 때가 있다	17.0 (148)	69.4 (605)	0.2 (2)	2.5 (22)	10.6 (92)	0.3 (3)	100.0 (872)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취직을 해야만 하는 현실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86.2 (752)	8.7 (76)	1.4 (12)	1.5 (13)	2.1 (18)	0.1 (1)	100.0 (872)
집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가계에 보태야 하는 부담이 있다	89.6 (781)	9.5 (83)	-	-	0.7 (6)	0.2 (2)	100.0 (872)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직, 또는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	68.1 (594)	28.8 (251)	1.9 (17)	0.3 (3)	0.6 (5)	0.2 (2)	100.0 (872)
부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	48.3 (421)	22.4 (195)	21.3 (186)	1.5 (13)	6.1 (53)	0.5 (4)	100.0 (872)
학비 때문에 빚을지고 있다	92.2 (804)	6.5 (57)	0.2 (2)	0.1 (1)	0.8 (7)	0.1 (1)	100.0 (872)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	60.3 (526)	17.0 (148)	0.6 (5)	14.6 (127)	7.6 (66)	-	100.0 (872)

3) 부모 및 가정영역

<표-28>의 부모 및 가정 영역에 대한 문제해결 행동유형에 있어서는 '가족 중에 싫거나 맞지 않는 사람 있다'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께 신경을 못써드려 마음에 걸린다'는 항목은 72.2%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중에 싫은 사람이나 잘 안맞는 사람 있다'는 항목에서는 '체념 또는 회피'의 유형을 보이고 있어서 노력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표-28> 부모 및 가정영역의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 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는 회피	무응답	계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 가 커서 부담스럽다	30.2 (263)	51.1 (446)	4.2 (37)	5.8 (51)	8.4 (73)	0.2 (2)	100.0 (872)
내가 하는 일 행동에 대해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다	51.3 (447)	31.0 (270)	2.9 (25)	5.5 (48)	9.3 (81)	0.1 (1)	100.0 (872)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76.8 (670)	9.6 (84)	1.7 (15)	4.1 (36)	7.7 (67)	-	100.0 (872)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78.2 (682)	8.7 (76)	1.9 (17)	2.4 (21)	8.5 (74)	0.2 (2)	100.0 (872)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하신다	80.7 (704)	12.0 (105)	1.3 (11)	1.7 (15)	4.1 (36)	0.1 (1)	100.0 (872)
형제, 자매들의 문제 로 걱정이 있다	65.3 (569)	17.3 (151)	5.2 (45)	5.2 (45)	7.0 (61)	0.1 (1)	100.0 (872)
가족중에 싫은 사람 나와 잘 안맞는 사람이 있다	71.3 (622)	9.2 (80)	1.7 (15)	3.7 (32)	14.0 (122)	0.1 (1)	100.0 (872)
부모님께 신경을 못써 드려 늘 마음에 걸린다	15.6 (136)	72.2 (630)	3.9 (34)	5.7 (50)	2.3 (20)	0.2 (2)	100.0 (872)
부모님과 또는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함을 느낀다	37.3 (325)	47.2 (412)	5.2 (45)	4.9 (43)	4.9 (43)	0.5 (4)	100.0 (872)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 해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다	30.0 (262)	48.1 (419)	4.6 (40)	6.0 (52)	11.2 (98)	0.1 (1)	100.0 (872)

4) 대인관계 영역

<표-29>의 대인관계 영역에 대해서는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들다'와 '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학교 안에 친구가 없다'는 항목은 '적극적 대처' 노력은 하나 그 반응이 미약(7.5%)하며,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친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다'는 항목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대인의존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서,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면 마음을 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항목은 '정서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 항목은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 놓기 힘들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곧 대인관계의 지름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29>

대인관계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 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 는 회피	무응답	계
사교성이 부족하다	42.4 (370)	39.8 (347)	4.2 (37)	11.4 (99)	2.2 (19)	-	100.0 (872)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	45.6 (398)	35.3 (308)	6.1 (53)	10.9 (95)	1.9 (17)	0.1 (1)	100.0 (872)
학교 안에 친한 친구가 없다	82.9 (723)	7.5 (65)	4.0 (35)	3.9 (34)	1.7 (15)	-	100.0 (872)
대인관계가 원만하 지 못하다	74.3 (648)	13.3 (116)	2.3 (20)	9.2 (80)	0.9 (8)	-	100.0 (872)
리더쉽이 부족하다	27.5 (240)	48.2 (420)	3.8 (33)	18.8 (164)	1.5 (13)	0.2 (2)	100.0 (872)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 놓기 힘들다	43.8 (382)	10.2 (89)	24.0 (209)	16.3 (142)	1.9 (17)	0.2 (2)	100.0 (872)
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	60.9 (531)	9.4 (82)	11.2 (98)	16.3 (142)	1.9 (17)	0.2 (2)	100.0 (872)
내 성적이 다	40.9 (357)	35.4 (309)	5.2 (45)	15.9 (139)	2.5 (22)	-	100.0 (872)
이성 앞에서는 웬지 자신이 없고 긴장된다	53.4 (466)	25.8 (225)	6.2 (54)	12.3 (107)	1.9 (17)	0.3 (3)	100.0 (872)
남 앞에서 내 의사를 분 명히 얘기하지 못하겠다	49.5 (432)	31.2 (272)	4.8 (42)	13.0 (113)	1.4 (12)	0.1 (1)	100.0 (872)

5) 성격 영역

<표-30>의 성격 영역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유형으로는 주로 '적극적 대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질이 급하다'와 '신경질을 잘 낸다'는 항목은 '적극적 대처' 방법과 '대인의존적 대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 두항목은 대체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격상의 문제로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주 우울해진다'는 항목에서는 '적극적 대처'보다는 '대인의존적 대처'에 의한 문제해결행동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우울 증세는 스스로 대처하기 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30> 성격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 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 는 회피	무응답	계
즉흥적, 충동적인 경향이 있다	24.7 (215)	55.0 (480)	17.0 (148)	0.8 (7)	2.2 (19)	0.3 (3)	100.0 (872)
성질이 급하다	32.3 (282)	33.1 (289)	30.7 (268)	1.1 (10)	2.5 (22)	0.1 (1)	100.0 (872)
우유부단하다	46.4 (405)	53.4 (466)	-	-	-	0.1 (1)	100.0 (872)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자주 우울해진다	32.7 (285)	19.8 (173)	35.9 (313)	9.1 (79)	2.3 (20)	0.2 (2)	100.0 (872)
자신감이 부족하다	31.2 (272)	56.3 (491)	9.1 (79)	1.3 (11)	1.9 (17)	0.2 (2)	100.0 (872)
신경질을 잘 낸다	43.8 (382)	29.6 (258)	22.8 (199)	2.2 (19)	1.5 (13)	0.1 (1)	100.0 (872)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하다	51.8 (452)	27.1 (236)	16.7 (146)	3.1 (27)	1.1 (10)	0.1 (1)	100.0 (872)
편견에 잘 빠진다	50.7 (442)	43.7 (381)	3.7 (32)	0.6 (5)	1.0 (9)	0.3 (3)	100.0 (872)
적극성, 활동성이 부족하다	45.5 (397)	49.3 (430)	2.1 (18)	0.3 (3)	2.5 (22)	0.2 (2)	100.0 (872)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38.6 (337)	54.6 (476)	3.2 (28)	0.9 (8)	2.4 (21)	0.2 (2)	100.0 (872)

6) 학업생활 영역

<표-31>의 학업생활 영역에 있어서 문제해결행동 유형으로는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학점이 나쁘다', '공부를 충실히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몰라 답답하다', '계획성있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시험, 학점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등이다. 특히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항목에서는 78.3%라는 높은 반응을 보여서 대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몰라서 답답하다'는 항목은 '적극적인 대처'방법 이외에도 '대인의존적인 대처'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항목은 '학교생활이 불만스럽고 의욕을 못느낀다', '대학에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현재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등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문제점수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항목은 '체념 또는 회피'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31> 학업생활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는 회피	무응답	계
성적 학점이 나쁘다	32.3 (282)	47.1 (411)	1.9 (17)	11.9 (104)	6.1 (53)	0.6 (5)	100.0 (872)
학교생활이 불만스럽고 별다른 재미나 의욕을 못느끼겠다	35.0 (305)	21.8 (190)	2.5 (22)	30.5 (266)	10.1 (88)	0.1 (1)	100.0 (872)
내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13.3 (116)	65.9 (575)	3.2 (28)	11.8 (103)	5.6 (49)	0.1 (1)	100.0 (872)
대학에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34.1 (297)	14.7 (128)	6.0 (52)	32.0 (279)	13.0 (113)	0.3 (3)	100.0 (872)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다	30.2 (263)	32.2 (281)	24.2 (211)	7.3 (64)	5.4 (47)	0.7 (6)	100.0 (87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46.0 (401)	10.6 (92)	2.9 (25)	21.6 (188)	18.9 (165)	0.1 (1)	100.0 (872)
계획성 있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4.8 (129)	62.4 (544)	4.0 (35)	10.8 (94)	7.9 (69)	0.1 (1)	100.0 (872)
전공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47.5 (414)	13.8 (120)	9.2 (80)	16.6 (145)	12.8 (112)	0.1 (1)	100.0 (872)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6.2 (54)	78.3 (683)	3.3 (29)	4.0 (35)	7.9 (69)	0.2 (2)	100.0 (872)
시험, 학점, 과제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	24.0 (209)	36.9 (322)	6.2 (54)	15.5 (135)	17.1 (149)	0.3 (3)	100.0 (872)

7) 교양 및 여가 영역

<표-32>의 교양 및 여가 영역에 있어서 문제해결행동 유형으로는 전 항목 모두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양, 상식이 부족하다'는 항목은 71.2%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보람있는 토론을 해볼 기회가 부족하다'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는 항목은 '대인의존적 대처'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이 두항목은 혼자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표-32> 교양 및 여가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 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는 회피	무응답	계
교양, 상식이 부족하다	20.8 (181)	71.2 (621)	4.8 (42)	1.6 (14)	1.5 (13)	0.1 (1)	100.0 (872)
춤이나 노래를 할 줄 몰라서 아쉬울 때가 있다	48.5 (423)	38.6 (337)	3.4 (30)	0.5 (4)	8.5 (74)	0.5 (4)	100.0 (872)
뚜렷한 취미나 특기가 없다	50.2 (438)	40.4 (352)	2.9 (25)	3.1 (27)	3.1 (27)	0.3 (3)	100.0 (872)
씨클활동을 원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	73.5 (641)	15.3 (133)	7.2 (63)	1.4 (12)	2.5 (22)	0.1 (1)	100.0 (872)
한두가지 악기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 때가 있다	33.7 (294)	49.9 (435)	3.1 (27)	0.7 (6)	12.5 (109)	0.1 (1)	100.0 (872)
여가를 활용할 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42.5 (371)	39.7 (346)	9.1 (79)	7.5 (65)	0.8 (7)	0.3 (3)	100.0 (872)
보람있는 토론을 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27.5 (240)	54.0 (471)	13.6 (119)	1.4 (12)	3.2 (28)	0.2 (2)	100.0 (872)
정신적 수양이 부족함을 느낀다	27.1 (236)	57.0 (497)	12.4 (108)	1.1 (10)	2.3 (20)	0.1 (1)	100.0 (872)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할 줄 아는 운동이 없다	68.9 (601)	21.8 (190)	4.2 (37)	0.9 (8)	3.8 (33)	0.3 (3)	100.0 (872)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	49.1 (428)	31.8 (277)	15.0 (131)	0.2 (2)	3.7 (32)	0.2 (2)	100.0 (872)

8) 진로 및 취업 영역

<표-33>의 진로 및 취업 영역에 있어서 문제해결행동 유형으로는 전 항목 모두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항목은 56.7%라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항목은 문제점수와 노력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대학생들에게 취업경쟁이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중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 '직업과 적성에 대한 답답함', '취업준비에 대한 불안', '전공과 졸업 후 활동 분야의 다름', '진로와 취업에 대한 역부족' 등의 항목은 '적극적 대처'와 더불어 '대인의존적 대처'도 함께하고 있어서 진로지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표-33> 진로 및 취업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는 회피	무응답	계
취직을 해야겠는데 학점이 나빠서 걱정이다	53.1 (463)	30.4 (265)	11.8 (103)	0.5 (4)	3.8 (33)	0.5 (4)	100.0 (872)
졸업후의 확실한 진로를 결정못해서 고민이다	41.9 (365)	35.3 (308)	18.8 (164)	0.6 (5)	3.3 (29)	0.1 (1)	100.0 (872)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48.3 (421)	32.9 (287)	15.4 (134)	0.5 (4)	2.9 (25)	0.1 (1)	100.0 (872)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3.7 (294)	38.9 (339)	21.7 (189)	0.7 (6)	4.8 (42)	0.2 (2)	100.0 (872)
하고 싶은일은있는데그일을해볼만한능력실력도과연있는지모르겠다	36.9 (322)	40.3 (351)	17.9 (156)	0.7 (6)	4.0 (35)	0.2 (2)	100.0 (872)
내 전공과 졸업후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서로 맞지 않는다	55.0 (480)	24.2 (211)	16.7 (146)	0.1 (1)	3.8 (33)	0.1 (1)	100.0 (872)
병역 군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86.7 (756)	3.3 (29)	6.5 (57)	0.1 (1)	2.1 (18)	1.3 (11)	100.0 (872)
나의 진로나, 취업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역부족, 무력감을 느낀다	49.0 (427)	25.1 (219)	18.6 (162)	1.3 (11)	5.8 (51)	0.2 (2)	100.0 (872)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42.3 (369)	34.3 (299)	19.4 (169)	0.5 (4)	3.2 (28)	0.3 (3)	100.0 (872)

9) 종교 및 가치관 영역

<표-34>의 종교 및 가치관 영역에 있어서 문제해결행동 유형은 전반적으로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가치관, 생활철학, 인생의 목적, 인생의 본질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친구들과 가치판단이 다른 것 같다'는 '대인의존적 대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의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표-34> 종교 및 가치관 문항별 문제해결행동 유형

문항내용	해당없음	적극적 대처	대인의존 적 대처	정서적 대처	체념 또는 회피	무응답	계
아직도 나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	37.8 (330)	45.9 (400)	13.2 (115)	0.1 (1)	2.1 (18)	0.9 (8)	100.0 (872)
내 나름의 생활철학이 없어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47.1 (411)	37.0 (323)	13.0 (113)	0.8 (7)	1.3 (11)	0.8 (7)	100.0 (872)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되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52.2 (455)	29.1 (254)	15.6 (136)	0.6 (5)	1.6 (14)	0.9 (8)	100.0 (872)
내 인생의 뚜렷한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46.7 (407)	33.3 (290)	16.7 (146)	0.3 (3)	2.2 (19)	0.8 (7)	100.0 (872)
친구들과 가치판단이 다른 것 같다	32.7 (285)	18.1 (158)	42.9 (374)	0.7 (6)	4.8 (42)	0.8 (7)	100.0 (872)
이상과 현실의 차가 심해서 어디서 기준을 두고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57.0 (497)	24.4 (213)	13.1 (114)	1.0 (9)	3.7 (32)	0.8 (7)	100.0 (872)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없어 고민하는 때가 있다	44.0 (384)	38.4 (335)	11.6 (101)	2.1 (18)	3.0 (26)	0.9 (8)	100.0 (872)
현재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한 회의와 갈등이 있다	88.9 (775)	5.8 (51)	2.8 (24)	0.2 (2)	1.1 (10)	1.1 (10)	100.0 (872)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49.7 (433)	30.6 (267)	14.0 (122)	1.0 (9)	3.7 (32)	0.9 (8)	100.0 (872)
종교를 가지고 싶지만 쉽게 믿음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 안타깝다	79.9 (697)	8.6 (75)	5.7 (50)	0.2 (2)	4.6 (40)	0.9 (8)	100.0 (872)

위의 9개 영역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 영역에서 '적극적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도 타인의 도

움을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한계를 느끼는 항목, 즉 '부직 구하기 어렵다', '남에게 속마음 털어놓기 힘들다', '남에게 신경질을 잘 낸다',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몰라 답답하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 '진로와 취업에 대해 역부족을 느낀다', '친구와 가치판단이 다르다' 등은 '대인의존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대처'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정서적인 것과 관련된 항목, 즉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 '남을 깊이 신뢰못한다', '학교생활에 불만스럽고 회의를 느낀다' 등은 '적극적 대처'를 하면서도 '정서적 대처'를 하고 있어 스스로 위로하거나 반성하며,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IV. 결 론

1.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성향과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정도,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제해결유형의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지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교에 재학중인 1-3학년 872명을 조사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대학별, 학년별, 성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선 문제성향에 있어서 가장 높은 문제점수를 보인 영역은 '학업생활'이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교양 및 여가', '진로 및 취업'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대인관계'였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7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공과대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가장 높은 문제점수를 보였으나 이를 영역별로 보면, 경제와 성격 영역에서는 3학년이, 학업생활에서는 1학년이 특히 더 높은 점수를 보여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그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문제점수를 나타내었다($p>0.01$).

이러한 문제점수와 관련하여 노력정도를 보면,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인 영역은 '성격'이고, 그 다음은 '학업생활', '건강', '대인관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력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경제'였다. 이러한 경향을 문제점수와 비교해 보면, 문제점수에서 높

은 점수를 보였던 '학업생활'과 '건강'영역은 노력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교양 및 여가'와 '진로 및 취업'영역은 문제점수에 비해 노력점수가 낮았다. 반면에 '대인관계'영역은 문제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여 대학생활중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공과대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문제점수와 노력점수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별, 성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문제점수와 해결노력점수간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차이점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업생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 '건강', '교양 및 여가', '진로 및 취업'의 순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영역은 문제를 많이 느끼기는 하나 이에 비해 노력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와 '성격'에서는 적은 수치이지만 음수로 나타나 학생들이 대인관계나 성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수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종교 및 가치관'영역도 낮은 차이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법정대학이 가장 높은 차이점수를 보인데 반하여 경상대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서 대학간에 노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낮은 차이점수를 보여 1,2학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차이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아서, 문제점수와 노력점수에서 비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남학생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해결행동유형의 분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양 및 여가'와 '진로 및 취업', '종교 및 가치관' 영역은 '적극적 대처'와 더불어 '대인의존적 대처'를 하고 있고, '학업생활'과 '대인관계'영역은 '적극적 대처'와 더불어 '정서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건강'과 '부모 및 가정'영역은 '적극적 대처'와 더불어 '체념 또는 회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학생지도 방안

위의 결과에서 볼 때, 본교 재학생들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소유하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은 매우 적극적인 방

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생들의 문제경향과 해결행동 유형이 실제로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당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양과정에 건강증진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건강과 관련된 항목에서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운동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위장이 나쁘며,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실제로 대학생활에서 건강을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간 입시준비를 하느라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학생활에서도 비록 건강상의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쫓다는 것만을 내세워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갖가지 신체적인 허약 증상이 나타나므로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과정에 교양 필수과목으로 건강증진과목을 개설하여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에게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 학교당국의 도움으로 사무보조, 야간당직, 거리질서 계도, 방법대원 등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이는 1995년도 1학기 현재 695명으로서 전체 학생의 약9%에 불과하며, 보다 많은 재학생들이 부직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높을수록 더 뚜렷하며, 그 원인은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개인이 쓰는 용돈을 부모님으로부터 타서 쓰고 있으며, 실제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비록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는 의존하고 있으나 독립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경제력이 없음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 및 가정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늘 부모님께 신경못써서 마음아파 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간섭도 덜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모님으로부터 점차 독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대학당국은 재학생들이 교내는 물론 교외의 관련기관에 부직을 가질수 있도록 다양한 부직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격 중에서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성질이 급하다는 점에 높

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노력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높은 문제의식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노력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점수에서 이 두 영역은 음수로 나타나서 전 영역중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유형에서도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인의존적 대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재학중 학업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어나기 쉬운 심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대학의 교육과정에 「사회봉사 실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5.31 교육개혁 조치」에서 보듯이 1996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 「종합생활 기록부」가 도입되어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진학 사정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일부대학에서도 대학 커리큘럼에 사회봉사 실습을 개설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에 높은 문제 의식과 더불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이 불만스러워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에도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양 및 상식이 부족하다’에 문제의식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위의 여러 점들을 고려해볼 때, 대학교육은 캠퍼스 울타리 내에서의 활동을 벗어나 사회문제의 해결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대학내에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도와주는 대학생 보호선도위원과 농아자를 도와주는 톨난소리, 적십자 봉사회, 동려회 등 많은 사회봉사 동아리가 있다. 이들은 학업 이외의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대학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실습」과목이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학점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정보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연국결과에 의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취업될까 걱정’이라는 항목이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 가장 높은 문제 의식과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문제의식과 노력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이 라는 시대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법은

대인의존적인 방법에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치열한 취업경쟁에 대처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1994학년도 2월 본 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보면, 남학생이 66.6%, 여학생이 57.1%로서 당해연도에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도 38%나 된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실태를 남학생이 취업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데, 앞으로는 여학생을 위한 취업정보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경·손영숙(1990). “본교생의 문제경향 및 해결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6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박재욱(1984). “대학생들의 문제경향 비교”, 『학생지도연구』 제5집, 안동대학학생생활연구소.
- 이태근·김규형(1982). “목포대학 재학생의 생활실태와 문제경향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지도연구』 창간호(제1집) 목포대학학생생활연구소.
- 홍재호(1981). “사대생의 문제경향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연구』 제10집, 공주사범대학부설 학생생활지도연구소.